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학교 제주4·3 유적지 현장 체험  
학습 방안 연구

- 평화인권교육과 연계하여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좌 승 하

2022년 02월



# 중학교 제주4·3 유적지 현장 체험 학습 방안 연구

- 평화인권교육과 연계하여 -

지도교수 양 정 필

좌 승 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 년 12 월

좌승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 년 12 월

A Study on the Experience Learning Method of Peace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 Jeju 43 Relics in Middle  
School

Jwa, Seung-H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eong-pil)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22. 02.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중학교 제주4·3 유적지 현장 체험 학습 방안 연구

- 평화인권교육과 연계하여 -

좌 승 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지도교수 양 정 필

평화·인권은 UN에 의해 1948년에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권리로서 강조되었으며, UN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을 통해 전 세계의 학생들이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느끼고 다시는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평화·인권을 위협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가 주도하여 대항하거나 방해하는 집단을 폭력과 인권 유린으로 자행하는 현상으로 발현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폭력이 당연시되면 개인과 개인, 국가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며, 역사의 과오로 축적되는 모순의 반복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평화·인권교육의 강화는 가치관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가치를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1948년 제주 지역에서도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바로 제주4·3이다. 제주4·3은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 이후 미군정이 제주도민에 대해 계속 탄압을 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당시 정부에서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무고한 제주도민들을 희생시켰다. 최근 역사교육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이 평화·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감수성을 키움으로써, 폭력, 차별과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예방 또는 제거를 위한 실천으로 이끌 수 있는 학습 지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제주4·3의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평화·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주4·3은 단순히 제주 지역만의 특수한 지역사로만 기억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올바른 평화·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제주4·3을 평화·인권 교육으로 활용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교과서이지만, 현행 역사 교과서의 내용에서는 제주4·3의 배경과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단편적인 결과만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평화·인권 의식과 제주4·3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 주는데 문제가 된다. 또한 최근의 설문 조사에서도 현장 체험 학습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고, 이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주4·3을 소재로 진행된 수업 사례나 연구 성과에서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유적지 현장 체험 학습 방안을 모색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중학생을 위한 제주4·3 유적지 현장 체험 학습 방안을 평화·인권 교육과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현장 체험 학습의 지역적 범위는 제주도를 동·서부로 나누어 자신과 관련된 지역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학습’, ‘현장 체험 학습’, ‘사후 학습’의 3단계에 따라 총 5차시의 활동지와 교수-학습 지도안을 모두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평화·인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유적지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평화·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동시에 실천 의지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왜 제주4·3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사적 당위성과 제주4·3의 올바른 인식을 심화함으로써 자신의 지역사는 물론 관련 유적지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각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한 수업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 둘째, 제주4·3의 평화·인권 교육과 유적지 현장 체험 학습을 연계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에게 제주4·3의 전개과정과 연계시켜 유적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제주4·3 유적지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분석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3
3. 연구 방법 .....	8
II. 제주4·3의 평화인권 교육과 현장 체험 학습 .....	11
1. 평화인권 교육과 제주4·3의 중요성 .....	11
2. 현행 『중학교 역사 ②』 교과서의 제주4·3 내용 분석과 현장 체험 학습의 필요성 ...	17
III.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한 제주4·3 유적지 선정 .....	25
1. 제주4·3의 전개과정과 주요 유적지 .....	25
2. 평화인권 교육을 위한 제주4·3 유적지 선정 .....	32
IV. 제주4·3 유적지를 활용한 평화인권 교수 학습 방안의 실제 .....	40
1. 제주4·3 유적지를 활용한 평화인권 교수 학습 목표 및 설계 .....	40
2. 제주도 동부 지역 4·3 유적지를 활용한 평화인권 교수 학습 방안 .....	43
3. 제주도 서부 지역 4·3 유적지를 활용한 평화인권 교수 학습 방안 .....	72
V. 결론 .....	100
참고문헌 .....	104
Abstract .....	110

## < 표 목 차 >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②』 교과서 내용 분석 .....	21
<표 2> 제주4·3연구소의 사건 특징별 유적지 분류 기준 일부 .....	26
<표 3> 2018~2019년 제주4·3연구소의 중요 유적지 선정 31개소 .....	27
<표 4> 사전 학습 단계의 교수 학습 목표 - [제주도 동부 지역] .....	43
<표 5> 사전 학습 단계의 교수 학습 지도안 - [제주도 동부 지역] .....	47
<표 6> 코스 구성 및 교수 학습 지도 계획 - [제주도 동부 지역] .....	52
<표 7> 현장 체험 학습 단계의 1차시 교수 학습 지도안 - [제주도 동부 지역] .....	54
<표 8> 현장 체험 학습 단계의 2차시 교수 학습 지도안 - [제주도 동부 지역] .....	59
<표 9> 현장 체험 학습 단계의 3차시 교수 학습 지도안 - [제주도 동부 지역] .....	63
<표 10> 사후 학습 단계의 교수 학습 목표 - [제주도 동부 지역] .....	67
<표 11> 사후 학습 단계의 교수 학습 지도안 - [제주도 동부 지역] .....	68
<표 12> 사전 학습 단계의 교수 학습 목표 - [제주도 서부 지역] .....	72
<표 13> 사전 학습 단계의 교수 학습 지도안 - [제주도 서부 지역] .....	75



<표 14> 코스 구성 및 교수 학습 지도 계획 - [제주도 서부 지역] .....	81
<표 15> 현장 체험 학습 단계의 1차시 교수 학습 지도안 - [제주도 서부 지역] .....	83
<표 16> 현장 체험 학습 단계의 2차시 교수 학습 지도안 - [제주도 서부 지역] .....	87
<표 17> 현장 체험 학습 단계의 3차시 교수 학습 지도안 - [제주도 서부 지역] .....	91
<표 18> 사후 학습 단계의 교수 학습 목표 - [제주도 서부 지역] .....	95
<표 19> 사후 학습 단계의 교수 학습 지도안 - [제주도 서부 지역] .....	96

## <그림 목차>

<그림 1> 사전 학습 단계 수업에서의 '도입 과정' PPT - [제주도 동부 지역] .....	44
<그림 2> 사전 학습 단계의 수업 활동지 - [제주도 동부 지역] .....	48
<그림 3> 현장 체험 학습 단계의 1차시 수업 활동지 - [제주도 동부 지역] .....	55
<그림 4> 현장 체험 학습 단계의 2차시 수업 활동지 - [제주도 동부 지역] .....	60
<그림 5> 현장 체험 학습 단계의 3차시 수업 활동지 - [제주도 동부 지역] .....	64
<그림 6> 사후 학습 단계의 수업 활동지 - [제주도 동부 지역] .....	69
<그림 7> 사전 학습 단계 수업에서의 '도입 과정' PPT - [제주도 서부 지역] .....	73
<그림 8> 사전 학습 단계의 수업 활동지 - [제주도 서부 지역] .....	76
<그림 9> 현장 체험 학습 단계의 1차시 수업 활동지 - [제주도 서부 지역] .....	84
<그림 10> 현장 체험 학습 단계의 2차시 수업 활동지 - [제주도 서부 지역] .....	88
<그림 11> 현장 체험 학습 단계의 3차시 수업 활동지 - [제주도 서부 지역] .....	92
<그림 12> 사후 학습 단계의 수업 활동지 - [제주도 서부 지역] .....	97

# I. 서론

## 1. 연구 목적

평화는 상호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없어 고요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인권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고 누려야 할 기본권을 말한다.<sup>1)</sup> 또한 어느 하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sup>2)</sup> 이러한 평화·인권은 1948년 이후 UN에 의해 국제적 기준이자 보편적 권리로 확장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UN은 전 세계 각국에서 자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실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다시는 국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화와 인권을 위협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정치, 경제, 종교, 민족 등의 차별 또는 혐오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에 발생한 미얀마 사태나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시리아 내전처럼 분쟁, 전쟁, 학살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는 여러 매체나 언론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도 성(性), 가정, 학교, 직장, 사이버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의 모습부터 차별 또는 혐오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오늘날의 일이 아니었으며, 과거에도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국가가 주도하여 폭력을 가한 사례들이 있었다. 흔히 ‘과거사’라고 하며, 대부분 광복 이후에 발생하여 국익을 내세워 자신에게 대항하

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 ‘인권용어사전’, 2021년 04월 10일 검색.

2) 고경아, 「제주지역 고등학생의 제주4·3 인식과 평화·인권교육 방안」, 부산대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 2020, 23쪽.

거나 방해되는 집단을 철저히 폭력과 탄압으로 억눌렀으며, 이들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1948년 제주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이 바로 '제주4·3'이다. '제주4·3'은 1947년 3·1절 발포 사건 이후 미군정의 계속된 탄압으로 인해 1948년 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이 봉기를 일으켰으며, 국가의 무차별적인 진압으로 인해 수많은 지역민들까지도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도 봉기 발발 이후부터 약 40년 동안 은폐·금지되어 오다가, 1987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서 진상 규명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최근에 와서야 당시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서로 화해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특정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평화·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인권의식이란 평화·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감수성을 키우며, 이를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습자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 연구소에서도 학생들의 평화·인권교육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제주4·3은 한국 현대사의 발전 과정 속에서 국가가 제주도민에게 저지른 폭력과 인권 유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라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비극과 갈등 관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준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폭력과 인권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제주4·3을 제주의 비극적인 지역사로만 강조하여 가르칠 것이 아니라 평화·인권 교육의 소재로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제주4·3 평화·인권 교육으로 활용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교과서이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중학교 역사 ②』 교과서의 현대사 분량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이는 제주4·3 서술에도 영향을 주었다.<sup>3)</sup> 그리하여 교과서의 내용만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제주4·3의 올바른 역사 인식은

3) 실제 2020년에 발행된 7종의 『중학교 역사 ②』를 살펴보면,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이 대략 8:2의 비율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학생들의 평화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과 자료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어떠한 곳에서도 이를 지원받는 경우는 살필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유적지 답사를 포함한 ‘현장 체험 학습’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었다.<sup>4)</sup> ‘현장 체험 학습’은 학생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생동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제주4·3 유적지에는 대부분 제주도민의 학살과 수난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장소들이 대다수이며, 사건의 배경과 진상규명 및 화해·상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적지들도 있어서 학생들의 평화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데 많적절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제주4·3 유적지를 활용한 현장 체험 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주4·3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게 하는 동시에 평화인권 의식을 높여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 선행 연구 검토

지금까지 역사교육에서 학생들의 평화인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됐으며, 특히 이러한 연구의 소재로서 제주4·3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평화인권교육과 역사교육의 관련성과 제주4·3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서 살펴보하고자 한다.

먼저, 평화인권교육과 역사교육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교육 및 수업 방안을 마련한 연구들이다. 이들은 역사적 사례 속에서 폭력과 인권 유린의 문제를 인식하여 비판하거나 재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삶과 연결할 수 있는 수업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sup>5)</sup> 또한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한

4)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구위탁사업) 4·3평화인권 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20, 29~30쪽, 32쪽.

5) 김남철, 「역사교육에서의 평화교육의 모색」, 『역사교육연구』 2, 한국역사교육학회, 2005; 조현서, 「교육 현장에서 바라보는 평화 감수성을 기르는 역사교육의 이상과 실제」, 『중원문화연구』 28,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20.

결과,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의 향상은 물론 평화인권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sup>6)</sup>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지역사 자료나 박물관 등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평화·인권 감수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7)</sup> 대체로 교육 내용의 소재로서 전쟁과 관련하여 수업 및 교육 방안을 모색한 경우가 많았으며<sup>8)</sup>, 대부분 연구의 결과가 학생들의 평화·인권의식이 행동적 영역으로 발전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최근 평화인권교육의 역사 교육 내용의 소재로써 활용되고 있는 제주 4·3에 대한 선행연구이다. 첫째,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조명을 살펴본 연구들이다. 이러한 역사적 조명을 살펴본 연구는 크게 배경 및 원인, 초토화 작전 및 6·25전쟁의 시기, 피해와 영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배경 및 원인과 관련하여 김동만, 진관훈은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가 해방 이후에 치안 및 각종 행정 등을 담당하면서 제주도민의 지지를 얻었던 반면에, 해방 이후 식량·물자 부족 현상과 미군정의 경제정책과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해 제주도민은 미군정에 대해 불신을 갖기 시작하였다.<sup>9)</sup> 또한 김평선, 허호준은 제1차 미·소공동 위원회의 결렬과 무기한 휴회를 계기로 미군정이 과도입법의원 선거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우익이 중앙 권력을 장악하여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 선언에 따라 제주도민을 ‘좌익’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제주도에서 발생한 1947년에 3·1사건과 3·10 민·관 총파업에 대해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sup>10)</sup> 뿐만 아니라 허호준은 극우파 도지사 부임과 미

- 
- 6) 황현정, 「가치를 다루는 역사 수업의 실제와 가능성 -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가치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24, 한국역사교육학회, 2016; 나미란, 「인권 관점에 의한 3·1운동 수업 구성과 실천」, 『역사교육연구』 30, 한국역사교육학회, 2018; 전보람,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초등 역사학습 내용 구성과 수업 실천」, 한국교원대 초등사회과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8.
  - 7) 강민정, 「지역 역사자료 활용을 통한 인권교육의 방법과 적용 - 서울시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 교과서 내용중심으로 -」, 서울교대 초등사회과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박연화, 「초등학생 평화교육을 위한 박물관 활용 방안 - 전쟁기념관과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을 중심으로 -」, 경인교대 박물관및미술관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8.
  - 8) 선혜란, 「평화감수성을 기르는 전쟁사 수업 : 한국전쟁을 사례로」, 한국교원대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9; 윤영섭, 「초등학생의 전쟁 인식과 평화교육 : 한국전쟁 수업방안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사회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김한중, 「평화교육과 전쟁사 -모순의 완화를 위한 전쟁사 교육의 방향-」, 『역사교육연구』 18, 한국역사교육학회, 2013; 정광운, 「전쟁사와 평화교육 :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사 교육을 통한 한국전쟁사 교육방법 연구」, 원광대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6.
  - 9) 김동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역사비평』 14, 역사문제연구소, 1991; 진관훈, 「해방 전후의 제주도 경제와 '4·3」, 『탐라문화』 21, 탐라문화연구원, 2000.
  - 10) 김평선, 「제주 4·3의 정치적 원인 - 과도입법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4·3과 역사』 14·15, 제주 4·3 연구소, 2015; 허호준, 「1947년 냉전체제의 형성과 제주도」, 『4·3과 역사』 17, 2017.

군정의 우익 강화정책, 계속된 고문치사 사건, 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의 조직 와해 위기 등으로 인해 결국 남로당 제주도당의 일부가 제주4·3이라는 무리한 봉기를 결정하게 되었다<sup>11)</sup>고 판단하였다.

초토화 작전과 관련하여 제주4·3 발발 초기에 군경은 소모전을 바탕으로 진압에 나섰으며, 이후 1948년에 들어 일본군 병사 또는 장교 출신의 지휘관들이 주도하여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게릴라 작전으로 바꾸었다. 제주도민을 ‘폭도 동조자로 인식하여 이들을 무차별적 폭력을 가하여 대량 학살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sup>12)</sup> 이후의 6·25전쟁과 관련하여 조정희는 1950년에 전쟁이 발발하여 예비검속이 실시되었는데, 이 때 도민들의 밀고나 고발에 의해 4·3 당사자나 그 시기에 큰 피해를 본 지역의 주민들이 희생되었다고 하였다.<sup>13)</sup> 박찬식은 이외에도 각지의 형무소 재소자 학살, 잔여 유격대 토벌과 방위조직 등에 동원 등 또 다른 고통을 가져다 주었으나, 제주도민들은 레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인으로 지원하는 노력도 있었다고 하였다.<sup>14)</sup> 피해와 영향과 관련하여 양정심은 토벌대에 의한 피해 경험으로 인해 제주도민 간의 갈등과 분열을 가져다주었고, 제주도민들의 피해 의식을 심어주어 레드 콤플렉스를 내면화시켰으며 이후에도 정부에 의한 4·3에 대한 망각과 금기가 강요됐다고 판단하였다.<sup>15)</sup> 박찬식은 제주4·3이 정부에 의해 금기시되면서 제주4·3을 ‘폭동 또는 반란’으로 인식해 왔으며, 2003년 이후부터 와서야 제주4·3은 ‘사건’이라는 공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sup>16)</sup>

둘째, 이러한 사실의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제주4·3 유적지에 관해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제주4·3 유적지는 사건과 관련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2000년 이후 정부에 의해 진상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주도 내의 4·3 유적 및 유적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유적 및 유적지의 실태를 살펴보고 어떤 사건과 관련 있는지 특징별로 정

11) 허호준, 「제주 4·3무장봉기 결정과정 고찰」, 『4·3과 역사』 7, 제주4·3연구소, 2007.  
 12) 김무용, 「제주4·3 토벌작전의 민간인 희생화 전략과 대량학살」, 『4·3과 역사』 8, 제주4·3연구소, 2008; 허호준, 「제주4·3에 있어서의 민간인 학살 논리 - 대게릴라전을 중심으로」, 『4·3과 역사』 8, 제주4·3연구소, 2008.  
 13) 조정희,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주지역 예비검속과 집단학살의 성격」, 제주대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3.  
 14) 박찬식, 「한국전쟁과 제주지역 사회의 변화 - 4·3사건과 전쟁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지역과 역사』 27, 부경역사연구소, 2010.  
 15) 양정심, 「제주 4·3항쟁과 레드콤플렉스」, 『사충』 63, 고려대 역사연구소, 2006.  
 16) 박찬식, 「'4·3'의 公的 인식 및 서술의 변천」, 『한국근현대사연구』 41,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리하여 2003년에 『제주4·3 유적 I - 제주시·북제주군 편』, 2004년에 『제주4·3 유적 II - 서귀포시·남제주군 편』을 발간하였다. 또한, 이 중 지역별·성격별에 따라 주요 유적을 선정하고 정비·보존·관리에 대한 계획을 언급한 『제주4·3 유적 종합 정비 및 유해 발굴 기본 계획』을 2005년에 발간하였다. 이러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특정 유적지를 중심으로 그 성격을 조명한 연구들이 있다.<sup>17)</sup> 구체적으로 무등이왓 거주공간의 변모, 전략촌성의 구조와 성격 변화, 성(城)을 포함한 주거건축물의 형태적·공간적 특징, 치유과정으로서의 영모원 조성, 은신처 동굴과 당시의 사람들 생활 등을 살핌으로써, 제주4·3의 역사적 사실과 연관 지어 각 유형의 유적의 의미와 특징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최근에 발표한 이그나즈 아니타와 하명실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각 유적지가 제주4·3의 전개과정과 평화인권적 측면에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보았다.

셋째, 제주4·3을 지역사 또는 평화·인권적 소재의 내용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역사교육적 차원에서 수업 방향 및 방안을 모색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제주4·3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가장 먼저 강조하여 수업 방안을 마련한 연구는 강순문이다. 강순문은 2000년 이후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유적 중심의 동·서부 답사 프로그램 계획 및 읽기 자료를 마련하였다.<sup>18)</sup> 또한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양한 사료 활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수업을 진행할 것을 강조하였다.<sup>19)</sup> 또한 단편적인 사실보다는 폭력·갈등부터 화해·상생까지의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실제 삶 속에서 평화·인권적 실천적 태도를 보여줄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sup>20)</sup> 하지만 교

17) 김지수, 「4·3과 중산간 마을의 거주공간 변모 : 남제주군 안덕면 무등이왓을 사례로」, 『제주도연구』 18, 제주학회, 2000; 김은희, 「제주 4·3전략촌의 형성과 성격」, 제주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김태일, 「1945년-1955년의 제주지역 4·3사건 관련 유적 분포 및 주거건축물의 특징 연구」, 『제주도연구』 34, 제주학회, 2010; 이그나즈 아니타, 「제주4·3사건과 주민의 동굴 피신생활」, 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6; 하명실, 「제주도 하귀마을의 4·3 경험과 치유과정 연구」, 제주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18) 강순문, 「초등학교 역사교육에서 4·3 학습 방안」, 제주대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2.

19) 박영기,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방안 - 제주 4·3 사건을 중심으로」, 경희대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서경선, 「기억을 통한 역사수업과 기념물의 활용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기억과 기념물을 중심으로 -」, 중앙대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9; 양금영, 「2015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 자료의 제주4·3사건 서술 분석과 수업 방안 모색」, 동아대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20.



실 수업이 텍스트 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가중되어 제주4·3에 관한 관심과 수업 참여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는 제주4·3은 해방 이후 미군정과 인민위원회·제주도민 간의 갈등에서 시작되었으나 미군정에서는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철저히 이들을 ‘빨갱이’라고 낙인을 찍어 폭력과 탄압으로 사태를 진압하고자 하였다. 이후에도 제주도민 간의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후세대들은 철저히 차별을 당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4·3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반평화·반인권의 모습을 담은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는 한동안 제주4·3을 가르치는 것이 금기되었으며,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의 내용을 축소·왜곡·누락시켰다. 이러한 점에 대해 교과서 서술의 변화를 요구하는 연구들도 있었으나<sup>20)</sup>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아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들로 진행된 것이 대다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제주4·3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으며, 최근에 와서는 평화·인권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수업 시간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제주4·3 수업 방안을 모색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앞서 언급한 교육과정의 지침대로 고등학생은 근현대사 위주, 중학생은 전근대사 위주로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정한 시수와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인해 주로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수업 방안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한계이다.

이처럼 제주4·3 교육의 주체를 단순히 국가 교육과정의 지침대로 고등학생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비판적 사고 능력이 본격적으로 형성하는 중학생 시기부터 제주4·3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실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 제주4·3의 올바른 인식 함양, 실제 삶 속에서 평화·인권 의식 함양과 실천 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지금까지의 교실 수업

20) 고경아, 앞의 논문, 2020; 한상희, 「4·3과 평화교육 - 후세대에게 첫 배움인 제주4·3」, 『역사와 교육』 19, 역사교육연구소, 2020.

21) 한철호, 「고교 역사교과서의 제주 4·3 사건 서술 경향과 과제」, 『사학연구』 103, 한국사학회, 2011;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제주 4·3사건 서술 내용과 향후 집필 방향」, 『탐라문화』 59,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5 개정 검인정 역사교과서 4·3 집필 기준안 연구발표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7; 양유석, 「제주4·3 서술의 과거와 현재」, 『4·3과 역사』 18, 제주4·3연구소, 2018.

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그 대상을 중학생으로 넓혀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4·3 유적지를 활용한 현장 체험 학습의 구체적인 자료 개발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주4·3 유적지 현장 체험 학습은 교실 내 수업에서 느낄 수 없었던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극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주 지역의 중학생들이 제주4·3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중학생들에게 제주4·3 당시 사람들의 고통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실제 삶 속에서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평화·인권 의식의 함양을 위한 제주4·3 유적지 현장 체험 학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량의 적정화로 인해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제주4·3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주4·3 교육 및 수업에 관한 연구 성과가 대부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아, 중학교 교사들의 실제 수업 적용에 대한 참고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현장 체험 학습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 대입으로 집중된 고등학교 현장보다는 중학교 현장이 시간상으로 많은 제약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용 대상을 중학생으로, 내용 범위를 ‘제주4·3’으로 국한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장에서는 역사교육에서 학생들의 평화·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왜 중요하며, 이러한 사례로서 제주4·3이 평화·인권적으로 어떠한 교육적 의미를 지니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중학교 역사』 7종에서 이러한 요소를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출판사별 서술 및 구성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평화·인권교육이 왜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평화·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언제부터 언급하기 시작하였고 역사교육에서 이를 어떠한 목표, 내용,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중학교 역사 영역의 내용을 국한시켜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적 소재로서 ‘제주4·3’이라는 사실과 현재의 모습이 학생들의 평화·인권의식을 함양하는 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제주4·3을 학생들에게 평화·인권교육적인 차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과 방법을 담고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제주4·3교육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로는 교과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침으로 인해서 현대사의 분량이 줄어들어 제주4·3 내용의 양질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최근에 발행된 7종의 『중학교 역사 ②』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제주4·3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물론 평화·인권교육을 위한 교육적 자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과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유적지 중심 현장 체험 학습 방안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제주4·3 유적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역사적 사건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평화·인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먼저, 지금까지 제주4·3연구소에서 조사된 유적이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전의 조사와 달리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주요 유적지 선정 기준과 이들이 제주4·3의 전개 과정에서 갖는 상징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주요 유적지 중에서 학생들의 평화·인권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유적을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이렇게 선정된 유적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학습 요소를 바탕으로 실제 중학교 수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체험 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수업은 현장 체험 학습의 기본적 단계로서 ‘사전 학습 단계’, ‘현장 체험 단계’, ‘사후 학습 단계’를 적용하여 평화·인권 의식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을 바탕으로 총 5차시로 구성할 것이다. 사전 단계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제주도민과 미군정, 좌익 세력(인민위원회에서 남조선노동당) 간의 갈등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사건의 배경을 보여주는 유적지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유적지를 통해 제주4·3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현장 체험 단계에서는 교사가 마련한 체험 활동지를 활용하게 하고, 직접 유적지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의 평화·인권 감수성을 높이고자 한다. 사후 학습 단계에서는 현장 체험 단계에서 살펴본 유적지의 모습과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모둠에서 한 명씩 발표해보는 시간을 구성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편성할 것이다. 그런 논의 후에는 모둠별로 평화인권의 중요성과 제주4·3이 왜 기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 제작의 과제를 부여하도록 구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평화인권 실천 의지 및 정의감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학생들에게 현장 체험 학습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개발 및 방안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역사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 참여를 높여 교실 수업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일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당시의 모습을 역사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하며 평화인권 감수성은 물론 평화인권을 위한 실천 의지를 함양하는 데 그 효과를 기대한다.

## Ⅱ. 제주4·3의 평화인권 교육과 현장 체험 학습

### 1. 평화·인권 교육과 제주4·3의 중요성

평화는 1960년대까지 만해도 전쟁을 반대하는 소극적 의미로 인식되어 왔었다.<sup>22)</sup> 그러나 1960년대 말 John Galtung은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등이 모두 제거되었을 때만이 진정한 평화라고 주장하였다.<sup>23)</sup> 이로 인해 평화는 자연과의 균형 속에서 정의의 기준을 따르고, 시민들에게 유의미한 참여를 제공하는 적극적 의미로 확장되었다.<sup>24)</sup>

인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권을 말한다.<sup>25)</sup> Karel Vašák은 인권을 근대 이후 세계사의 흐름에 따라 세대별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세대 인권은 소극적 성격을 지닌 자유권 중심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2세대 인권은 적극적 성격을 지닌 사회권 중심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제3세대는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권리 등으로 분류하였다.<sup>26)</sup>

또한 평화와 인권은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 유기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평화는 민주주의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보편 지향의 가치라면, 인권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가치이다.<sup>27)</sup> 평화

22) 김남철, 앞의 논문, 2005, 143~148쪽.

23) 여기에서 언급하는 구조적 폭력은 특정 집단이나 국가에 의해 사회 구조와 관련하여 정치·경제적 차별, 인권 유린 또는 침해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폭력은 종교, 사상, 언어, 예술, 과학, 교육 등에 존재하여, 직접적·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을 의미한다(정현백, 「역사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 서독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80, 역사교육연구회, 2001, 92쪽; 윤영섭, 「초등학생의 전쟁 인식과 평화교육 : 한국전쟁 수업방안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사회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7쪽).

24) 김한중, 『민주사회와 시민을 위한 역사교육』,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141쪽.

25)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 '인권용어사전', 2021년 04월 10일 검색.

26)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s://humanrights.cau.ac.kr/human.php?mid=m03\\_02](https://humanrights.cau.ac.kr/human.php?mid=m03_02)], '인권의 3세대 개념', 2021년 04월 10일 검색.

27) 황현정, 앞의 논문, 2016, 229쪽.

와 인권 중 어느 하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박탈될 수 있어<sup>28)</sup>, 평화이든 인권이든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해가는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29)</sup>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평화인권은 국제적 기준이자 보편적인 권리로써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승전국을 중심으로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 속에 1945년 6월 국제연합(UN)의 운영에 기초가 되는 규범으로서 UN 헌장을 마련하여 국제 평화를 유지하고, 인권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였다. 헌장에 따라 같은 해 10월 UN이 창설되었으며 1948년 12월 UN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평화인권을 보편적인 권리로 확대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평화인권교육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교육은 폭력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 능력 및 비판 의식을 키워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화에 대한 상상력을 길러내어 이를 위한 행동에 참여하는 연대 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기도 하다.<sup>30)</sup> 또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를 기르며, 인권 침해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타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행동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sup>31)</sup> 따라서 평화인권교육은 학생들이 평화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되는 상황을 비판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기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평화인권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있어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권과 관련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한다.’고 명시하였다.<sup>32)</sup> 또한 평화와 관련하여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국가와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를 기른다.’고 명시하였다.<sup>33)</sup>

28) 고경아, 앞의 논문, 2020, 23쪽.

29) 권순정, 강순원, 「평화교육과 인권교육의 상보성에 관한 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10,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2015, 56쪽.

30) 김남철, 앞의 논문, 2005, 148쪽.

3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조 제1호.

32)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해설』, 교육과학기술부, 2010, 66쪽.

그러다 2015년 세계 교육 포럼(WEF)에서 국제 사회의 주요 의제로서 평화 교육과 인권 교육을 포괄하여 학습자의 삶과 연계시킬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 시민 교육(GCE)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강조를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권과 관련하여 이전 교육과정의 방법을 계승하여,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받고, 각종 폭력을 예방하도록 한다.’를 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sup>34)</sup> 평화와 관련해서는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민주와 평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sup>35)</sup>

이 목표는 이전부터 역사교육의 이론에서도 비슷하게 강조되어 왔었다. 역사교육의 이론에서는 학습자가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학습자의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사물과 현상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sup>36)</sup> 또한 역사교육을 통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고, 현재와 유사한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sup>37)</sup>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역사교육의 이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역사교육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아는 정도의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행동적 영역까지 나아가는 것을 그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화·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역사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은 물론 학생들의 평화·인권의식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생들의 평화·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의 어떠한 내용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사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사 영역에서는 근현대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쟁이나 통일, 민주화 운동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과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소주제에서 ‘분단, 6·25전쟁, 7·4 남북공동성명, 6·15 남북 공동 선언’ 등과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헌

33)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014호 [별책 7] -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2, 36쪽.

34)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 중학교』, 교육부, 2017, 57쪽.

35)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교육부 고시 제2015-074호의 일부개정) -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2018, 97쪽.

36) 전영준 편, 『역사교과교육론』,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2014, 9쪽.

37) 최상훈 외 4인,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 함께, 2007, 23쪽.

법, 제헌 헌법,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에 대해 각각 살펴볼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38)</sup>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파악하고, 평화 통일의 방안에 대해 탐색한다.’라고 각각 명시되어 있다.<sup>39)</sup> 이처럼 교육과정에서 언급한 역사교육의 내용과 성취기준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현재 분단국가라는 상태에 초점을 두어 평화적인 통일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민주화 운동의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물론 민주화 운동 또는 법과 제도의 보장이나 통일 또는 반전(反戰)에 대한 주제가 평화·인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내용으로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으로만 국한해서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평화·인권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특정 개념으로 국한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평화의 개념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내용으로만 언급한다면, 학생들은 평화의 개념을 분단국가의 국민으로서 함양되는 가치이자, 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이나 수단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sup>40)</sup>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폭력과 인권 유린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로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면, 전쟁, 통일 노력, 민주화 운동 등 이외에도 광복 이후부터 정부가 자신의 권위에 대항하거나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폭력과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몰아넣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례들을 가리켜 흔히 ‘과거사’라고 하며, ‘과거사’란, 지배 권력에 의한 폭력과 억압으로 인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은폐·왜곡시킨 근현대사 사례들을 말한다.<sup>41)</sup> 즉, 당시 국가에서는 이러한 상대적으로 소수인 사람들을 국가 체제로부터 배제시켰으며, 정부에서는 이들을 이른바 ‘역사 없는 사람들’로

38)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15-074호 [별책 1] (교육부 고시 제2020-248호 일부개정 포함) -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2020, 115~116쪽.

39)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 -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교육청, 2018, 30쪽.

40) 고경아, 앞의 논문, 2020, 23쪽.

41) 방지원, 「공감과 연대의 역사교육과 ‘과거사’ 문제 - 성찰적 역사교육을 위한 시론 -」, 『역사교육연구』 28, 한국역사교육학회, 2017, 121쪽.



전략시키게 하였다.<sup>42)</sup>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전에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평화·인권교육의 소재로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sup>43)</sup> 이처럼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지역의 사례나 상대적으로 소수인 사람들 등의 피해 등과 관련하여 역사교육에서도 조명하여 학생들의 평화·인권교육의 소재로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4·3을 들 수 있다. 제주4·3은 광복 이후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미군정의 정책 실패의 상황 속에서 1947년 3·1절 사건과 이후 미군정의 제주도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 등이 원인이 되어, 1948년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명분으로 4월 3일 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의 일부에 의해서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54년 9월까지 이승만 정권은 무장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무고한 제주도민까지 폭력과 학살의 현장으로 몰아넣었으며, 이 때 피해 입은 사람들이 최대 30,000명으로 추정된다.<sup>44)</sup>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제주도민들은 ‘빨갱이’라고 인식되는 레드콤플렉스에 시달려야만 했으며, 정부는 제주4·3에 대한 진실을 은폐·왜곡시켰다. 물론 4·19 혁명 이후 공적으로 ‘사건’으로 인식되었으나, 5·16쿠데타로 인해서 다시 ‘폭동’으로 인식되어 1990년대까지 이어져 왔다.<sup>45)</sup> 이러한 인식은 교육계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진실에 대해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이에 국사 교과서와 관련하여 2차~4차 교육과정에서는 제주4·3을 ‘무장 폭동’으로 서술하였으며, 5~6차 교육과정에 와서 ‘사건’으로 사용하였으나 근본적 시각의 변화는 없었다.<sup>46)</sup> 사실상 정부에서는 제주4·3에 대한 언급은 물론 교육하는 것에 대해 이를 금기시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다 제주4·3은 어두웠던 과거에서 벗어나 진실을 알리는 공식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 제주4·3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진상 조사를 시작하여 마침내 2003년에 『제주4·3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가 완성되어 공식

42) 전진성, 「인권은 역사학의 범주가 될 수 있는가? - ‘인권의 역사’ 서술의 동향과 이론적 전망」, 『역사비평』 103, 역사비평사, 2013, 28~29쪽.

4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 삼영문화인쇄사, 2010, 225쪽.

4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평화재단, 2015 (초판, 2003), 537쪽.

45) 박찬식, 앞의 논문, 2007, 195쪽.

46) 양유석, 앞의 논문, 165쪽.

보고서로서 채택되었다. 또한 그해에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이후에도 2003년 하귀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영모원 조성, 2013년 제주경우회와 유족 간의 화해 및 합동 참배 선언, 2019년 군경의 공식적인 사과 등 화해·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 주목하여 2020년 제주대 평화연구소에서는 제주4·3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학생들이 평화·인권을 이해하고 차별과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는 동시에 이를 근절시키고, 자신의 삶의 관계에서의 폭력에 맞서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행동을 이끌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다.<sup>47)</sup> 또한 사건의 흐름 속에서 개인, 마을 등의 다양한 사례와 진상 규명 과정과 화해·상생 노력 등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 정서적 공감, 정의감 등의 함양과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48)</sup>

제주4·3은 해방 이후 발생한 정부와 제주 지역민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으나, 정부가 이념의 잣대로서 무고한 제주도민들까지 폭력과 인권 유린으로 자행하였던 전형적인 제노사이드<sup>49)</sup> 사례라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이러한 사례를 학습한다면, 학생들 스스로가 여러 행위자의 입장을 분석·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자신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sup>50)</sup> 또한 역사 속의 다양한 인물 또는 집단에 감정 이입함으로써 그 처지에 공감하여 학생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며 내면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sup>51)</sup> 뿐만 아니라 198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폭력과 인권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47)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앞의 보고서, 2020, 63~64쪽.

48)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위의 보고서, 2020, 65~68쪽.

49) 여기서 언급하는 ‘제노사이드(Genocide)’란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저지른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48).

50) 조현서, 앞의 논문, 2020, 185쪽.

51) 나미란, 앞의 논문, 2018, 122~123쪽.

## 2. 현행 『중학교 역사 ②』 교과서의 제주4·3 내용 분석과 현장 체험 학습의 필요성

제주4·3은 평화·인권교육의 소재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례이다. 제주4·3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자료들은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접하는 교육적 자료는 교과서를 꼽을 수 있다. 교과서는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고도화한 교수-학습 활동의 기본 도서를 지칭한다.<sup>52)</sup> 이 때문에 교과서는 국가가 교육과정의 내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완성도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 교과서에 진상규명의 성과를 반영하여 제주4·3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각 출판사의 교과서에는 다양한 집필자의 관점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sup>53)</sup> 그러나 교과서에 제주4·3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없었으며, 그러다 보니 대부분 진상 규명 작업이나 평면적인 사실 서술에만 집중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이어졌으며, 가이드라인 마련도 고등학교 교과서 중심으로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새 중·고교 교과서에 대한 제주4·3 집필 기준안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교육부에 전달하였다.

2020년에는 금성, 동아출판,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총 7종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이 교과서 구성의 특징은 이전의 교육과정 교과서 구성과 달리, 세계사와 한국사를 완전히 분리하였다. 이로 인해 세계사와 한국사 각 영역별로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맥락적 학습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특이한 점은 ‘학습의 적정화’에 있었다. ‘학습의 적정화’라는 것은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52) 전영준 편, 앞의 책, 2014, 67쪽.

53) 최상훈 외 4인, 앞의 책, 2007, 135쪽, 139쪽.

적절한 내용 분량의 범위를 일컫는다. 실제로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으로 ‘나. 교과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라고 하였다.<sup>54)</sup> 이러한 지침으로 인해 『중학교 역사 ②』 교과서에서는 대략 8:2의 비율로 이전보다 전근대사 비중이 늘어나고, 근현대사 분량 비중이 줄게 되었다. 또한 근현대사의 내용 구성이 합쳐짐에 따라 그 비율이 더욱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제주4·3도 영향을 주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성출판사에서는 본문이나 좌우 날개단에 제주4·3이 어떠한 배경으로 일어나 전개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나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또한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대단원 마무리 과정으로서 ‘우리들만의 근현대사 소설 표지 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창의·융합 프로젝트 과제로 4개의 소설 중 『순이 삼촌』을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또, 『순이 삼촌』 내용 분량도 상자 안에 작은 글씨로 언급한 6줄이 전부이며, 주인공 ‘순이 삼촌’의 모습을 통해서 제주4·3의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라는 점만 간단히 언급한 정도였다. 이처럼 제주4·3에 대해 본문이나 날개단에 언급이 없고, 더 나아가 교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과제로서 제시하여 학생들이 4개 중 하나로 선정하지 않는 이상 제주4·3에 대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아출판에서는 본문에 3줄 정도로 통일 정부 수립의 노력이 있었지만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그중 하나로서 제주4·3을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세력과 군경이 충돌한 사건”으로 “제주4·3사건이 일어났고 이러한 진압에 반대하여 일어난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날개단에는 작은 글씨 10줄의 분량으로 제주4·3을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47년 3·1절 기념 시위 때 경찰의 발포로 사망자가 발생하여 갈등이 고조”되었음을 서술하여 제주4·3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봉기 이후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하였고, 진압 과정에서 1954년 9월까지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고 서술하여 제주4·3의 결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진

54) 교육부, 앞의 교육과정, 교육부, 2020, 3쪽.

압과 토벌이 있었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또한 봉기를 일으킨 주도 세력에 대해서도 관련 보고서 및 연구 성과에도 명확히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 제주도당의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모호하게 ‘좌익 세력’이라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의 진상 규명 및 화해·상생을 상징하는 사례도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언급에 대해 찾아볼 수 없었다.

미래엔에서는 본문에 1931년부터 1948년까지 독립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과정을 연표에 표현하고 있으며, 이 중 1948년에 일어난 대표 사건으로 제주4·3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제주4·3과 관련하여 4월 28일에 평화를 위한 협상이 성사되었으나, 이러한 협상이 파기가 된 사건으로 ‘오라리 방화 사건’의 결과를 보여주는 ‘제주도의 불탄 마을’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하단에는 작은 글씨 4줄로 “남한 단독 선거에 저항하여 좌익 세력과 일부 제주도민이 봉기하였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주도 세력을 ‘좌익 세력과 일부 제주도민’이라고 서술하고 있어 마치 학생들이 제주도민도 봉기에 동참하였다고 착각할 수 있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한 제주4·3이 어떠한 배경으로 인해 일어났으며, 정부의 대대적인 토벌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비상교육에서는 본문을 나누어 서술하고 있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185쪽에서는 1줄 정도 제주4·3을 소개하면서 “미·소가 38선을 기준으로 자신들에게 협조하는 정권을 세우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주4·3사건과 같이 민간인이 희생되는 사건도 일어났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제주4·3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라고 언급하면서 205쪽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이다. 205쪽에서는 2줄 정도로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여 제주4·3사건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이 발생하여 민간인이 희생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날개단에서는 제주4·3에 대해 작은 글씨 5줄로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하는 좌익 세력’과 ‘이를 진압하려는 군경, 반공단체 등이 무력 충돌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제주도민 3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도 막연하게 주도 세력을 ‘좌익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만 ‘제주4·3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하다’라는 제목으로 보충심화 자료로 제시하면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산주의자로 몰린 무고한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많



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민주화의 진전으로 2000년의 관련 특별법 제정, 2003년의 국가 권력의 잘못을 인정하는 정부의 공식적 사과 등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2014년 4월 3일을 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하였으며, 민간에서도 이를 알리고 기억하려는 노력이 지속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시각 자료로 '제주 봉개동에 있는 제주4·3평화공원의 행방불명자들의 표석'을 사진으로 제시하여 여전히 제주4·3은 해결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대대적인 토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지학사에서는 본문에 3줄로 “UN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10 총선거가 시행되었으나, 이전에 단독 선거 반대하는 제주4·3이 일어나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별다른 추가 설명이 담긴 날개단이나 이를 보여주는 시각 자료는 전혀 없었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것은 무력 충돌 과정이 아니라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만 제주4·3의 배경이나 전개 과정, 결과, 진상 규명 및 현재에 대한 언급이나 시각 자료의 제시도 없었다.

천재교육에서는 본문에 2줄 정도의 분량으로 “제주도에서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무장봉기가 발생하였고, 진압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추가로 제주4·3을 설명하는 날개단이나 관련된 시각 자료 등에 대한 제시가 없어 학생들이 제주4·3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리베르스쿨에서는 특이하게 다른 6종의 교과서와 달리 제주4·3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의 별다른 언급 및 활동 없이는 학생들이 제주4·3에 대한 관심은 물론 학습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분석한 7종 교과서 속 제주4·3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②』 교과서 내용 분석

출판사	구성, 분량	텍스트	시각 자료
금성	- [창의·융합프로젝트]에 작은 글씨 6줄 서술	- 배경, 봉기 목적, 전개 과정, 주도 세력, 현재 등의 내용 언급 없음 - 소설 『순이 삼촌』 소개 정도	X
동아	- [본문] 6줄, [날개단] 10줄, 작은 글씨 서술	-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 (봉기 목적) - 1947년, 3·1절 발표 사건으로 갈등 고조 (배경) - 좌익 세력, 무장대 (주도 세력) -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충돌 과정, 진압 과정 (민간인 희생 원인) - 많은 (민간인 희생자 수) - 정부의 대대적인 토벌, 사건 이후 현재까지의 모습 등의 내용 언급 없음	X
미래엔	- [본문] 연표로 사진 하단에 작은 글씨 4줄 서술	- 남한만의 단독 선거 저항 (봉기 목적) - 좌익 세력과 일부 제주도민 (주도 세력) - 진압 과정 (민간인 희생 원인) - 많은 (민간인 희생자 수) - 사진 하단에 왜 마을이 불타는지에 대한 설명 없음 - 사건 이후 현재까지의 모습 등의 내용 언급 없음	 제주도의 불탄 마을
비상	- [본문]을 나누어 185쪽에 1줄로 소개 후, 205쪽에 2줄 서술 - [날개단에 작은 글씨 5줄 서술 - [보충심화 자료]에 8줄 서술	-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 (봉기 목적) - 좌익 세력 (주도 세력) - 좌익 세력과 군경 반공 단체 등의 무력 충돌 (민간인 희생 원인) - 3만 명 (민간인 희생자 수) - 민주화의 진전으로 2000년의 특별법 제정, 2003년의 정부의 공식적 사과, 2014년 희생자 추념일 지정, 민간에서의 노력 등 (사건 이후의 진상규명 및 모습)	 제주4.3평화공원 내의 행방불명자들의 표석
지학사	- [본문] 3줄 정도로 서술	- 단독 선거 반대 (봉기 목적) - 진압 과정 (민간인 희생 원인) - 전개 과정, 주도 세력, 현재까지의 모습 등의 내용 언급 없음	X
천재	- [본문] 2줄 정도로 서술	- 단독 선거 반대 (봉기 목적) - 진압 과정 (민간인 희생 원인) - 많은 (민간인 희생자 수) - 전개 과정, 주도 세력, 현재까지의 모습 등의 내용 언급 없음	X
리베르	X	X	X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제주4·3과 관련된 연구 성과들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부분 교과서에서는 제주4·3의 배경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주도 세력도 언급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기술하였다. 제주4·3은 단순히 UN의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결정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제주4·3은 복잡한 사회·경제적·지정학적 배경과 더불어 미군정의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견제·압박 등의 정치적 배경 속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47년 3·1절 발포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미군정과 사회주의 세력 물론 제주도민 간의 갈등 국면에 치달게 되었다. 또한 계속되는 도민과 사회주의 세력의 탄압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세력이 일부였던 급진파의 주도하에 단독정부 수립 반대의 명분을 가지고 제주4·3을 일으킨 것이다.

특히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언급한 교과서는 동아출판뿐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주도 세력에 대해서도 ‘좌익 세력’, ‘좌익 세력과 일부 제주도민’, ‘무장대’ 등으로 표현하거나 아예 언급도 없었다.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 무장대’,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 급진 세력’ 등이 표현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일부 제주도민’이라고 추가로 언급하는 것은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마치 제주도민 일부도 같이 주도한 것처럼 역사적 사실로 인식할 수 있어 제주4·3을 잘못 이해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부분 교과서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제주도민의 수난과 이들을 지켜내려 한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술이나 자료가 부족하였다. 비상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교과서에서는 제주4·3이 현재 어떠한 성과가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었다. 물론 비상교육에서도 2014년에 공식 추념일로 지정한 내용까지만 언급하고, 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자들의 표석을 보여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머지 출판사의 교과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주4·3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이 제주4·3이 아직 해결 과정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교과서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결과만 단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였던 미군정은 봉기가 일어나자마자 극우단체 및 경찰을 증파하여 초기에 진압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진압되지 않았으며 이후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제주도에 대한 계엄령을 선포하여 ‘초토화 작전’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제주도민들에게 고통과 수난을 가져다주었다.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진상 규명이 있기 전까지 고통의 생활을 감내하며 지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제주도민들을 지켜내려 한 인물들이 있었고, 진상 규명 이후에는 하귀 영모원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유족 간의 화해와 상생의 길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제시하여 보여주는 교과서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 이유로는 교육부에서 중학교는 전근대사 위주,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위주의 ‘학습의 적정화’라는 지침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각 시대의 전공 집필자들 사이에서 그 시대와 관련된 내용의 분량을 지정하였을 것이며, 이로 인해 제주4·3 내용을 신는 과정에서 서술의 양질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4·3을 제대로 알리는 동시에 평화·인권 의식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과서 내용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와 방관자, 피해자들이 폭력에 놓인 상황과 구조 등의 이해를 통해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해줄 필요가 있다.<sup>55)</sup> 특히 인권 유린의 참혹함과 인간의 고통에 초점을 둔 자료를 제공하고 자세히 다루면, 학생들의 참여와 공감을 끌어내기 더 쉬울 것이다.<sup>56)</sup> 이러한 자료로서 지역사 자료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지역사에 대한 관심은 물론 역사 학습에 흥미와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sup>57)</sup> 또한 지역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방안이 마련된다면 학생들의 제주4·3의 올바른 인식과 평화·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유적지 등 현장 체험 학습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으며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주대 평화연구소에서는 4·3 평화·인권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제주도내 교사 129명과 초등학생 116명, 중학생 119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4·3 교육

55) 한상희, 앞의 논문, 2020, 103쪽.

56) 박연화, 앞의 논문, 2018, 9쪽.

57) 강민정, 앞의 논문, 2006, 26쪽.

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모두 ‘다양한 체험학습 강좌를 늘린다(43.5%)’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다.<sup>58)</sup> 교사들을 대상으로도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4:3 교육 정책 중 가장 유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모두 ‘유적지 답사 등 현장 체험 활동(31.4%)’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다.<sup>59)</sup>

중학생과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반응을 보인 현장 체험 학습은 사건과 관련된 장소를 찾아가 학습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 방법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만 주로 실시되며, 사전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목표·계획이 있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형 과제를 부여하고 사후 학습을 통해 이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sup>60)</sup> 이러한 방법은 현장을 직접 봄으로써 역사를 더 생생하게 이해하고,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sup>61)</sup> 제주4·3을 주제로 하는 기념관이나 박물관, 유적지 등은 모두 학생들에게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수업 사례나 연구 성과에서도 중학생 대상의 유적 현장 체험 학습 방안을 모색한 경우가 없어, 교사들이 직접 현장 체험 학습을 기획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제주4·3 유적지 현장 체험을 지원하는 학습 방안의 마련은 학생들의 제주4·3 인식은 물론 평화·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인 교육 요소이다.

---

58)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앞의 보고서, 2020, 29~30쪽.

59)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위의 보고서, 2020, 32쪽.

60) 최상훈 외 4인, 앞의 책, 2007, 184쪽.

61) 강민정, 앞의 논문, 2006, 17쪽.

### Ⅲ.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한 제주4·3 유적지 선정

#### 1. 제주4·3의 전개 과정과 주요 유적지

##### 1) 제주4·3의 주요 유적지 현황과 특징

제주4·3 유적지는 ‘제주4·3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사건의 자취와 유물’을 총칭하며, ‘제주도민이 해방과 제주4·3을 겪고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집합 기억이 뒤엉킨 채 남아 있는 장소나 기념물’을 의미한다.<sup>62)</sup> 이처럼 제주4·3 유적지들은 사건과 관련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1987년 이후에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초점을 두면서, 유적과 관련된 사안은 그 이하의 문제로 취급되어 그동안 방치되어 훼손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다 정부에 의해 진상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제주4·3연구소와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 제주도 전역에 있는 4·3 유적 및 유적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sup>63)</sup>

조사 결과, 당시 제주도 내에 있는 제주4·3 유적지는 모두 총 597개였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복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제주4·3연구소는 2018년에 유적지에 대한 추가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2019년에 보존 관리 계획을 재수립하였다. 이를 제주4·3연구소에서는 지역별로 분류하였고,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62) 제주도, 제주4·3연구소, 『제주4·3 유적 II - 서귀포시·남제주군 편』, 도서출판 각, 2004, 11쪽; 제주도, 제주4·3연구소, 『제주4·3 유적 I - 제주시·북제주군 편』, 도서출판 각, 2003, 17쪽.

63)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 70년)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CNC출판, 2017, 763쪽.

<표 2> 제주4·3연구소의 사건 특징별 유적지 분류 기준 일부<sup>64)</sup>

- ① 역사현장 : 제주4·3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곳
- ② 잃어버린 마을 : 1948년 11월 이후 중산간 마을이 토벌대에 의해 전소되어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10호 이상의 마을
- ③ 주둔지 : 제주4·3기간 군·경 토벌대나 서북청년회, 무장대가 주둔했던 곳
- ④ 은신처 : 제주4·3기간 주민들이 토벌대나 무장대로부터 쫓겨 숨었던 곳
- ⑤ 학살터 : 제주4·3기간 주민들이 토벌대나 무장대에 의해 5명이 집단 학살된 곳
- ⑥ 민간인수용소 : 제주4·3기간 주민들이 토벌대에 의해 무차별로 체포되어 집단 수용되었던 곳
- ⑦ 4·3성 : 1948년 12월 이후 무장대의 침입을 막고자 마을 주변을 둘러 쌓아 현재까지 남아 있는 성
- ⑧ 희생자 집단묘지 : 토벌대에 희생된 주민들이 집단으로 안장된 곳.
- ⑨ 기타

이러한 분류에 따라 추가로 조사된 유적지의 실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이전에 조사되었던 유적지는 총 597개소였으나, 233개소가 더 늘어나 현재 총 830개소의 유적지가 남아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2차 조사를 통해 파손되거나 없어지거나, 복원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당시 사건의 유적지가 아니어서 배제하거나, 유사한 항목의 중복을 통폐합시켜 정리하게 되면서 그 수가 감소되었으나, 새롭게 발굴된 유적지로 인해 총 233개소가 추가되었다<sup>65)</sup>

둘째, 2019년에 제주4·3연구소는 새롭게 제주4·3 유적지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전에 지정되었던 주요 유적지가 총 19개소의 유적지이었으나, 12개소가 추가되어 총 31개소의 유적지가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4개소가 정비가 이뤄졌으며 없어진 1개소가 있었으며 이후 조사에 따라 16개소가 추가되었다<sup>66)</sup> 또한 2005년에 종합 정비·보존 및 문화 자원화 방안에 대한 계획안에서 마련된 ‘역사적 상징성’, ‘보존 정도’, ‘사건별 대표’, ‘지역별 대표’, ‘대중성’, ‘4·3평화공원과의 접근성’, ‘향후 보존·복원 작업 또는 문화재 지정 시 부지 매입 가능성’ 등의 7개의 평가 항목에 따라 몇 차례 회의를 거쳐 지정한 것이다.<sup>67)</sup> 이 때 선정된 중요 유적지 31개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4) 제주도, 제주4·3연구소, 『제주4·3 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 계획』, 도서출판 각, 2005, 43~44쪽.

65) 이동현, 「4·3유적 관리 실태와 보호방안 - 유적지 전수 조사를 중심으로 -」, 『4·3과 역사』 20, 제주4·3연구소, 2020, 166~170쪽.

66) 이동현, 위의 논문, 2020, 173쪽.

67) 제주도, 제주4·3연구소, 앞의 보고서, 도서출판 각, 2005, 48쪽.

<표 3> 2018~2019년 제주4·3연구소의 중요 유적지 선정 31개소(68)

시/읍/면	동/리	장소명	성격
제주시	삼도동	관덕정 앞 광장	역사 현장
	오라동	오라리 방화사건 현장	역사 현장
	화북동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용담동	도령마루	학살터
	아라동	관음사 주둔소	주둔지
	건입동	주정공장 옛터	민간인수용소
	월평동	월평동 4·3성	4·3성
애월읍	납읍리	납읍리 4·3성	4·3성
	어읍리	빌레못굴	은신처
한경면	청수리	한수기곳	은신처
한림읍	월령리	진아영 할머니 삶터	기타
	동명리	문수동 4·3성	4·3성
조천읍	선흘리	목시물굴 및 주변 은신처	학살터
	함덕리	서우봉	학살터
	북촌리	조천지서	학살터
	교래리	북받친밭(이덕구 산전)	은신처
	와산리	종남마을	잃어버린 마을
구좌읍	세화리	다랑쉬굴	학살터
서귀포시	동홍동	정방폭포	학살터
	중문동	중문 신사 터	학살터
	영남동	영남동	잃어버린 마을
	서호동	시오름 주둔소	주둔지
대정읍	신평리·무릉리	한수기곳	은신처
	상모리	섯알오름 백조일손지지	학살터 희생자 집단묘지
남원읍	신례리	수악 주둔소	주둔지
	위미리	위미리 4·3성	4·3성
	의귀리	송령이골	희생자 집단묘지
안덕면	동광리	큰넓궤	은신처
		무등이왓	잃어버린 마을
표선면	표선리	한모살	학살터

## 2) 제주4·3의 주요 유적지와 전개 과정의 연관성

제주4·3 주요 유적지 31개소는 제주4·3연구소에 의해 선정되었다. 이러한 주요 유적지를 학생들에게 지역사 교수-학습의 소재로써 활용되기 위해서는 4·3의 전개 과정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한 ‘<표 2> 제주4·3연구소의 사건 특징별 유적지 분류 기준’과 ‘<표 3> 제주4·3 주요 유적지 31개소’ 등을 중심으로 제주4·3의 전개 과정과 연관 지어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주4·3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광복 이후 제주도의 정치, 경제·사회 등의 다양한 측면의 상황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이를 사회주의 단체와 제주도민, 미군정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항복으로 인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처리 문제를 명분으로 미국과 소련은 우리나라를 38도선에 따라 남과 북으로 나누어 각각 군정을 실시하였다. 1945년 모스크바 3상 회의에 따라 미·소에 의한 신탁 통치가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찬반 의견의 차이를 둘러싸고 좌·우익 간의 이념 대립이 시작되었다. 또한 모스크바 회의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공동위원회를 1946년과 1947년에 열어,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나 상호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모두 결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7년 미국에서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함으로써, 이 시기부터 미·소 간의 본격적인 이념의 대립인 ‘냉전’이 시작되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당시 광복 이후 일본에서의 6만여 명 도민의 귀환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였고, 더욱이 미군정에 의한 1945년 미곡 자유 판매제 시행, 1946년 미곡 수집 체제 등이 번번이 실패하였고, 1946년에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유행하였는데 특히 제주도의 피해가 가장 극심하였으며, 제주도의 발농사의 대홍작으로 인해 식량난이 발생하게 되었다.<sup>68)</sup> 이 외에도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관리와 경찰 등을 재임용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미군정 관리들과 모리배(謀利輩)들 간의 비리

68) 이동현, 앞의 논문, 2020, 172~173쪽.

6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위원회, 앞의 보고서, 2015, 98~99쪽.

사건인 ‘복시환(福市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도민들이 미군정을 불신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sup>70)</sup>

미군정의 상황과 달리 광복 이전부터 한반도에서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이후에 ‘인민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전국에 지부를 두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9월 22일에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이들은 제주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제주도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은 일반 치안부터 친일파들에 대한 인민재판, 일본군과 도민 간의 물자 교류 단속까지의 치안 활동, 야학, 농업 교육, 체육대회, 학교 설립 사업 등의 자치 활동 등을 펼쳤다. 특히 이들은 행정기능을 담당하였지만 미군정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친일파들을 처벌하거나 일본패잔병의 횡포를 막는 치안 활동에 주력하였다.<sup>71)</sup> 또한 미군정은 이들이 다른 지역과 다른 독자적 운영과 더불어 미군정에 협력할 정도로 온건적 성향을 지닌 특징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이들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차단하였다.<sup>72)</sup>

이러한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1947년에 ‘관덕정 앞 광장’에서 ‘3·1절 발포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로 인해 6명이 사망하였고 8명이 중상이 입게 되었다. 제주도민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미군정에 철저한 규명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군정은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였다.<sup>73)</sup> 이후 도지사를 포함한 제주도민은 3·1 0 민·관 총파업을 단행하여 이에 항의하였으나, 미군정은 오히려 이들을 검거하여 통제하였으며 심지어 제주도를 “빨갱이의 섬”이라고 규정지었다.<sup>74)</sup> 이로 인해 제주도민의 미군정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갔고 깊은 갈등의 국면으로 치달게 되었다.

제주도의 상황에 더하여 미·소 공동위원회가 무산된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 정부 수립의 문제를 국제연합(UN)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국제연합(UN)은 남북한 인구수에 비례한 총선거 시행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북한과 소련에서 반발이 있었으며, 이에 다시 소총회를 열어 결국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

70) 진관훈, 앞의 논문, 2000, 133~134쪽.

71)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 ① 해방의 환희와 좌절, 3·1절 발포와 4·3의 길목』, 1994, 72쪽.

72) 김동만, 앞의 논문, 1991, 203~204쪽.

73) 제민일보 4·3취재반, 위의 책, 1994, 270쪽.

74) 허호준, 앞의 논문, 2007, 192쪽.

다. 그러나 이승만을 포함한 일부 세력을 제외한 대다수의 세력과 국민들은 UN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제주도에서도 1948년에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 제주도당에 의한 2·7 구국 투쟁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여러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경찰은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거나 검거하였다.<sup>75)</sup>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인해 학생과 청년 등 3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회주의 세력들도 남로당 제주도당의 조직이 노출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sup>76)</sup>

다음으로, 이들의 신진 세력들에 의해서 단정 및 단선 반대를 명분으로 4월 3일에 경찰서 12개 지서와 우익 단체를 공격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났으며, 이에 미군정은 육지 경찰과 서북청년회 등을 증파하여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였다.<sup>77)</sup> 하지만 사태가 진압되지 않았으며 이에 9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여 미군정의 허가를 받아 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4월 28일에 무장대 총책임자인 김달삼과 평화적인 협상 체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5월 1일에 우익 청년 단체로 추정되는 특정 세력에 의해서 당시 오라리(현 오라동)에서 민가가 불타는 ‘오라리 방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sup>78)</sup>

이로 인해 9연대장인 김익렬을 해임하게 되었고, 제주도의 평화로운 상황은 깨지게 되었다. 1948년 8월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정부가 수립된 이후, 9연대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송요찬 연대장에 의해서 11월에 ‘해안선 5km 이상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로 간주한다는’ 포고령이 내려졌다.<sup>79)</sup>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초토화 작전’이 실시되면서, 무차별적인 진압은 무장대 세력은 물론 제주도민까지도 학살하였으며 그들의 터전도 불태워 없애버리면서 제주도의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왔다.

이 때, ‘무등이왓’, ‘영남동’, ‘종남마을’, ‘곤을동’과 같은 마을들이 순식간에 ‘② 잃어버린 마을’로 전락하게 되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초토화 작전의 내용

7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위원회, 앞의 보고서, 2015, 147~148쪽.

76) 허호준, 위의 논문, 2007, 203쪽.

7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위원회, 위의 보고서, 2015, 534쪽.

78) 허호준, 앞의 논문, 2017, 266~267쪽.

79) 『조선일보』 1948. 10. 20.



인 당시 ‘② 잃어버린 마을’의 대상은 중산간 지역의 마을들이 전부여야 하지만, ‘곤을동’과 같이 해안 지역의 마을들도 그 피해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민들은 이러한 작전으로부터 피하려다 발각되거나 아예 피하지 못하여 순식간에 집단학살의 현장이 되는 ‘⑤ 학살터’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장소들로는 ‘도령마루’, ‘목시물굴 및 주변 은신처’, ‘서우봉’, ‘조천지서’, ‘다랑쉬굴’, ‘정방폭포’, ‘중문 신사 터’, ‘한모살’ 등을 들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북받친반(이덕구 산전)’, ‘빌레못굴’, ‘한수기곶’, ‘큰넓궤’ 등과 같은 ‘④ 은신처’로 숨어 목숨을 부지했거나 이마저도 발각되어 학살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1948년 12월 전후로 ‘월평동’, ‘납읍리’, ‘문수동’, ‘위미리’와 같은 지역에 무장대를 막아내고자 ‘⑦ 4:3성’을 축조하였으며, 1949년 이후에는 토벌대가 ‘관음사 주둔소’, ‘시오름 주둔소’, ‘수악 주둔소’ 등과 같은 ‘③ 주둔지’를 새로 설치하거나 재활용하였다. 이외에도 토벌대가 제주도민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여 집단으로 수용되었던 ‘⑥ 민간인 수용소’의 ‘주정공장 옛터’도 있었으며, 이후 이들은 집단으로 희생되어 행방불명이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1949년에 새로운 무장대 총책임자였던 이덕구가 사살되면서 그 세력은 서서히 약화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좌익에 동조할 것 같은 사람들을 구금 또는 처벌하라는 예비검속(豫備檢束)<sup>80)</sup>을 내려, 또 다시 제주도민들에게 공포를 가져다주었다. 이 때 대상자는 4·3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사람들이었으며, 주민들이 서로 밀고나 고발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sup>81)</sup> 이 당시에 제주도 서부지역의 사람들이 희생당했던 ‘⑤ 학살터’가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첫알오름’이다. 이와 같은 예비검속으로 인한 희생은 인천 상륙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철수하면서 9월이 돼서야 비로소 중단하게 되었지만, 당시 희생자의 수가 총 566명이었다고 한다.<sup>82)</sup>

이후에도 제주도민들은 경찰에 의해 잔여 무장대를 토벌하는 데 동원되었으며, 주로 경찰들의 역할을 보조하여 마을 성곽의 보조 임무를 담당하였다.<sup>83)</sup> 한편, 제

80) ‘미리 준비해서 검사하고 단속한다.’는 말처럼 범죄 방지를 명목으로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단속한다는 말이다.

81) 조정희, 앞의 논문, 2013, 68~69쪽.

82)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 제주4·3평화재단, 2019, 425쪽, 491쪽.

주도민들은 여전히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고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레드콤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해병대나 학도병에 자원하여 입대하기도 하였다.<sup>84)</sup>

1953년 7월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은 휴전 협정을 체결하여 중단되었으며, 이에 제주도에서도 1954년 9월에 한라산 금족령(禁足令)이 전면적으로 해제되면서 4·3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후 이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유족들에 의해서 ‘백조일손지지’, ‘송령이골’ 등과 같은 ‘⑧ 희생자 집단 묘지’를 건립하였다. 물론 이러한 묘지를 건립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정부에서는 이러한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였으며, 사사건건 간섭하여 방해하였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러한 묘지를 제대로 건립할 수 있었으나 시신은 이미 훼손되어 그 형체를 거의 파악하기 어려웠다. ‘⑨ 기타’로 당시 피해를 당했지만 비록 살아남아 평생 고통을 감내하여 살아왔던 인물의 생가를 기념을 위한 장소인 ‘진아영 할머니 삶터’도 있다.

## 2. 평화·인권 교육을 위한 제주4·3 유적지 선정

지금까지 제주4·3연구소에서 선정한 중요 유적지 31개소에서는 당시 제주4·3의 전개 과정에서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평화·인권 의식 함양에 이 모든 유적을 활용하는 것이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특히 평화·인권의 가치에 대한 판단과 감수성, 행동 의지 등을 함양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유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제주4·3 유적지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은 물론 평화·인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까?

첫째, 갈등 상황, 폭력과 학살, 수난 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앞서

83) 박찬식, 앞의 논문, 2010, 92쪽.

84) 양정심, 앞의 논문, 2006, 44쪽.

언급하였듯이 사건 특징별로 중요 유적지 31개소를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기준 항목이 바로 ‘은신처’와 ‘학살터’였다. ‘은신처’와 ‘학살터’는 군경과 서북청년회들이 제주도민들에게 자행되었던 폭력과 학살의 모습, 이를 피하고자 노력한 제주도민들의 고난을 겪은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이러한 점은 학생들이 제주4·3을 통해 평화·인권의 판단력, 감수성을 키우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제주4·3이 왜 일어나게 되었으며 미군정과 도민 간의 갈등 관계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적도 선정되어야 한다. 폭력과 학살, 수난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왜 등장하게 되었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파악되어야 폭력과 학살, 수난의 결과뿐만 아니라 사건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제주4·3 유적지를 통해 평화·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있어 평화·인권의 판단력, 감수성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감과 행동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제주4·3연구소가 중요하다고 선정한 유적지에는 평화·인권의 판단력, 감수성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의 평화·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있어 정의감과 행동 능력을 키울만한 유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4·3 유적지 중 추가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현장 체험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사건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유적지여야 한다. 지금까지 제주4·3 유적지는 어느 정도 현존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이다. 이러한 유적지들이 현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당시 제주4·3의 모습을 기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적지가 아무리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중요 유적지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즉, 실제 집단으로 현장 체험 학습할 때 활용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있는 유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연구자가 앞서 언급된 주요 유적지와 추가 유적지 3개소를 직접 답사하여 살펴본 결과,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집단으로 다니기에 어려운 곳들이 있었다. 이러한 장소들로는 대부분의 ‘주둔지’ 유형, ‘학살터’ 및 ‘은신처’ 유형 그리고 ‘서우봉’, ‘북받친밭(이덕구 산전)’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당시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곳들이 있었다. ‘곤을동’을 제외한 대다수의 ‘잃어버린 마

을’ 유형, ‘주정공장 옛터’, ‘조천지서’, ‘중문 신사 터’, ‘오라리 방화 현장(연미 마을)’ 과 같은 장소들이 이러한 경우였다. 이러한 모든 유형은 실제로 집단으로 현장 체험 학습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당시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학생들이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사실 인식은 물론 추체험하는 데에 있어 한계를 가져다줄 것이다. 즉, 현장 체험 학습에 이러한 유적지들을 활용하기에 부적합하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은신처이자 학살터로서 대표되는 유적지인 ‘첫알오름 학살터’, 이러한 모습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서 제시할 수 있는 ‘진아영 할머니 삶터’와 ‘곤을동’ 등을 선정하였다. 이곳은 현장 체험 학습 시 학생들에게 왜 평화인권이 중요하고 소중하며 특히 반인권, 폭력적인 현장을 찾아감으로써 학생들의 평화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알오름 학살터’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모슬포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 서부 지역의 예비검속 대상자들이 집단으로 학살된 장소이다. 이곳과 관련하여 최근에 당시 예비검속의 지역별 총 피해자 수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제주시 지역은 199명, 서귀포 지역은 114명, 성산포 지역은 13명, 모슬포 지역은 240명이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은 모슬포 지역이었다.<sup>85)</sup> 특히 모슬포 지역의 예비검속은 한림면, 대정면, 안덕면을 중심으로 1950년 6월 25일~8월 중순 경에 실시되었으며, 경찰과 해병대가 이 지역의 대상자들을 연행하여 경찰서와 지서 유치장, 모슬포 절간고구마<sup>86)</sup> 창고, 한림 어업 창고 등에 구금하였다.<sup>87)</sup>

또한 이렇게 구금당했던 사람들은 ‘첫알오름 학살터’로 끌려갔는데, 이곳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사용되었던 탄약고 터였으며 그 안에는 2개의 구덩이가 있었는데, 이는 해방 이전 미군에 의한 폭격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후에 군경이 앞서 언급한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2개의 구덩이로 데려가 집단으로 총살시키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구체적으로 1950년 8월 20일 새벽 2시에는 한림 어업 창고 및 무릉 지서에 구금되었던 63명이, 새벽 5시경에는 모슬포 절간고구마 창고에 구금되었던 132명이 해병대 제3대대에 의해 각각 집단학살 되었다.<sup>88)</sup>

85) 제주4·3평화재단, 앞의 보고서, 2019, 491쪽.

86) ‘절간고구마’란, ‘얇게 썰어 햇볕에 말린 고구마’를 의미하며, 제주도에서는 ‘빼떼기’라 하여, 과거에 즐겨먹던 음식 중의 하나였으며 일제에 의해 설립된 주정공장의 원료로도 많이 활용되었다.

87) 조정희, 앞의 논문, 2013, 27쪽.

‘첫알오름 학살터’는 현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590-3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서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버스를 타고 충분히 학생들 단체가 현장 체험을 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곳의 현 모습을 살펴보면 입구의 오른쪽에는 ‘증거인멸의 장소’와 ‘불법주륙기’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으며, 2개의 구덩이와 위령 기념 제단을 중심으로 둘레에 계단 길과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다.

‘진아영 할머니 삶터’는 故 진아영 할머니가 제주4·3 당시에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존하여 그 이후부터 살아생전 생활했던 장소이다. 1948년 12월 ~ 1949년 1월까지의 군에 의한 잔인한 토벌로 인한 도민들의 희생이 엄청난 시기였지만, 당시 할머니는 고향 한경면 판포리의 오빠 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갔고 있었다.<sup>88)</sup> 사실 이때까지 판포리는 초토화 지역에서 제외되어 아무런 인명 피해가 없었으나, 1949년 1월 13일에 식량 약탈을 위해 무장대가 습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처음으로 큰 희생을 초래하게 되었다.<sup>90)</sup> 이로 인해 10여 명이 희생되었고, 특히 할머니는 무장대로 오인한 경찰의 총탄에 턱을 맞고 쓰러졌으나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평생 ‘무명천’을 감고 살았다.<sup>91)</sup> 턱을 잃어버린 할머니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지금의 삶터가 있는 곳으로 와서 살게 되었으나, 생전에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약에 의존해야 했고 피해 경험으로 인해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2004년에 별세하였다.<sup>92)</sup>

‘진아영 할머니 삶터’는 그녀를 기억하고자 ‘삶터 보존회’라는 단체에서 2008년에 이곳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제주시 한림읍 월령1길 22 (지번 : 한림읍 월령리 380)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선인장군락지 맞은편에 주차장이 있어 버스를 타고 충분히 학생들 단체가 현장 체험을 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주차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곳 주변에는 ‘무명천 할머니 길’이라고 벽을 꾸민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대문 입구에는 정낭이 설치되어 있다. 내부에 들어가면 할머니 생전에 사용했

88) 제주도, 제주4·3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4, 38~39쪽.

89) 4.3아카이브 - 4·3유적지 ‘진아영할머니 집터’ (<http://www.43archives.or.kr/viewHistoricSiteD.do?historicSiteSeq=50>).

90)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 6권 ① 한림면 청수리 ~ 애월면 장전리』, 2002, 38쪽.

9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 4·3평화의 길을 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7, 139쪽.

92) 위의 사이트.

던 여러 가지 유품, 소박한 분향 상 차림, 할머니를 위한 예술 작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곤을동’은 1948년 11월 이후 군경 토벌대에 의해 소개(疏開)되었던 ‘잃어버린 마을’ 유형의 유적지 중의 하나이다. ‘잃어버린 마을’ 유형의 유적지는 2004년에 108곳으로 조사되었으나, 최근에 새롭게 조사하여 무려 122곳까지 늘어나게 되었다.<sup>93)</sup> 이러한 유형의 유적지는 제주4·3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준 1948년 11월부터 1949년 2월까지의 초토화 작전 시기에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 대상은 대부분 중산간 지대의 마을과 주민들이었다.<sup>94)</sup>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산간 지대의 지역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예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었으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유적지이다.

이곳은 반농반어로 생계를 지내던 약 70여 호로 이루어진 해안마을이자, 화북천을 식수로 사용하였으며 마을 공회당도 말방앗간도 있었던 전형적인 자연 마을이었다.<sup>95)</sup> 그러다 영문도 모른 채 1949년 1월 5일~6일 간에 군인들에 의해 초토화되면서 순식간에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버렸으며, 또한 이 때 희생당한 사람들은 무려 30여 명 정도 되었다.<sup>96)</sup> 구체적으로 젊은 사람들 10여 명을 끌고 별도봉 바닷가로 끌고 가 총살하였으며, 살아남은 젊은 남자 대부분을 끌고 가 ‘모살불’이란 해안에서 총살시켰다.<sup>97)</sup>

‘곤을동’은 현재 제주시 화북1동 4429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확히는 별도봉과 화북포구 사이에 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마을이 위치해 있던 돌담 터만 있으며, 여전히 마을은 복원되지 않아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없다. 다만 최근에 이곳과 관련된 사업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추후에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입구에는 당시 마을의 모습을 추정하여 보여주는 조감도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로서 거옥대와 방사탑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주요 유적지로서 선정되지 않았으나 학생들의 정의감과 행동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평화인권으로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하귀 영모원’, 전반적인

93) 이동현, 앞의 논문, 2020, 164쪽.

9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위원회, 앞의 보고서, 2015, 378쪽.

9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7, 123~124쪽.

96) 4.3아카이브 - 4·3유적지 ‘곤을동(곤을동) 마을터’ (<http://www.43archives.or.kr/viewHistoricSiteD.do?historicSiteSeq=34>).

97) 제주도, 제주4·3연구소, 앞의 보고서, 도서출판 각, 2003, 151~152쪽

역사적 사실과 진상 규명의 모습 등을 보여주는 ‘제주4·3평화공원’, 사건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서 학살과 수난의 모습을 보여주는 ‘너븐숭이 4·3 공원’ 등을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중요 유적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영모원’은 하귀리 마을의 제주4·3 시기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인권을 향해 나아가고자 노력했던 장소이다. 해방 이후 하귀리에서는 하귀중학원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1947년에 3·1절 기념대회와 3·10 민·관 총파업에 거의 참석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군정의 검거를 피해 숨어 다녀야 했다.<sup>98)</sup> 1948년 5·10 선거 때에는 하귀리의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하귀리의 사람들은 보복 학살을 당해야만 했다.<sup>99)</sup>

이러한 비극은 초토화 작전에도 계속되었으며, 특히 9연대와 2연대가 교체되는 12월에 집중되었다. 구체적으로 단국중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죽음, 가문동 원방디 학살사건, 개수동 진수리 학살사건, 비학동산 학살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군경 토벌대에 의해 320여 명이 희생되었다.<sup>100)</sup> 예비검속 시기에도 희생은 계속되었고, 종결된 이후에는 ‘빨갱이 마을’로 낙인으로 찍혀 하귀리에서는 마을의 명칭을 바꾸거나 마을의 젊은이들은 살아남고자 입대하였으며, 마을 주민 간의 분열은 더욱 가속화되었다.<sup>101)</sup> 그러나 1987년 이후부터 시작된 진상규명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2003년에 지난 아픔으로 인한 하귀리의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영모원’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곳은 순군지사, 호국영령, 4·3 희생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표본으로 평가받고 있다.<sup>102)</sup>

‘영모원’은 현재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134-1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확히는 하귀1리 교차로에서 애조로의 조천 방향에 있다. 이곳에 가면 ‘영현비(英顯碑)’, ‘충의비(忠義碑)’, ‘위령비(慰靈碑)’ 등이 세워져 있으며, 그 가운데에 그곳에 묻힌 사람들 모두에게 제를 지낼 수 있는 ‘위령단(慰靈壇)’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위령비’ 뒤에는 영모원 조성의 목적을 알 수 있는 ‘여기 와 고개를 숙이라’라는 비문이 적혀있다.

9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7, 26쪽.

99) 하명실, 앞의 논문, 2017, 26쪽.

100) 제주도, 제주4·3연구소, 위의 보고서, 2003, 584~585쪽.

101) 하명실, 앞의 논문, 2017, 61쪽.

102) 4·3아카이브 - 4·3유적지 ‘영모원’ (<http://www.43archives.or.kr/viewHistoricSiteD.do?historicSiteSeq=18>).

‘너븐숭이 4·3기념관’은 제주4·3의 초토화 작전 시기에 있던 ‘북촌리 학살’을 기념하고자 만든 장소이다. 북촌리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4·3의 초토화 작전 시기에 끔찍한 고통을 겪었던 마을 중의 하나였으며, ‘영모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복 학살 사건 중의 하나였다.

1947년 1월 17일 2연대의 일부 병력이 북촌리에서 무장대의 기습으로 2명의 군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를 계기로 ‘북촌리 학살’이 일어나게 되었다.<sup>103)</sup> 이후 북촌리에 군인들이 들이닥쳐 주민들을 북촌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집합시켜, 군경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학교 인근 밭에 총살하기 시작하였다.<sup>104)</sup> 당시 희생자의 수는 299명으로, 제주4·3의 전개과정에서의 지역 사건 중 가장 많은 인명 희생을 가져다준 사건으로 평가된다.<sup>105)</sup> 또한 이때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성들까지도 희생당하였으며, 1954년에는 한국전쟁에서 죽은 청년을 위한 장례식 과정에서 ‘아이고’라고 대성통곡했다는 이유로 이장이 고초를 겪은 일도 있었다.<sup>106)</sup> 이후 제주4·3 당시의 북촌리 사건을 기억하고 이 때 희생되었던 이들을 기리고자, 2008년에 ‘너븐숭이 4·3기념관’이 건립되었다.

‘너븐숭이 4·3기념관’은 현재 제주시 조천읍 북촌3길 3 (지번 : 제주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599)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확히는 북촌삼거리를 지나 일주도로의 함덕 방향에 있다. 기념관 내부에는 제주4·3의 전개과정 속에서 북촌리의 역사 설명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 사건을 소재로 4·3을 재조명하여 진상규명의 과정에 영향을 주었던 현기영 작가의 『순이 삼촌』 초판본과 외국어 판본이 전시되어 있다. 주변 외부에는 희생자를 기념할 수 있는 ‘위령비’가 있으며, 당시 희생당했던 어린아이들을 임시 가매장했던 ‘애기무덤’들도 있다. 또한 당시 학살의 현장이었던 ‘옴팡밭’과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순이삼촌 문학비’도 살펴볼 수 있다.

‘제주4·3평화공원 및 기념관’은 제주4·3의 비극적 역사를 기억하고 재현하여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주도를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만들기 위하여 조성되어 2008년에 개관하였다. 이곳은 현재 제주시 명림로 430 (지번 : 봉개동 237-2)

10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2017, 102쪽.

10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위원회, 앞의 보고서, 2015, 413쪽.

105) 제주4·3평화재단, 앞의 보고서, 2019, 169~170쪽.

106) 4·3아카이브 - 4·3유적지 ‘너븐숭이 4·3기념관’ (<http://www.43archives.or.kr/viewHistoricSiteD.do?historicSiteSeq=39>).



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확히는 명도암 교차로에서 절물 방향에 있다. 이곳의 공원에는 위령 제단, 위령탑, 각명비, 행방불명인 표석, 유해 봉안관 등과 각종 조형물들이 있다.

또한 기념관의 내부를 살펴보면 제1관에서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백비(白碑)가 누워있으며, 이는 제주4·3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제2관에서는 해방 이후 한반도와 제주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준다. 제3관에서는 제주4·3이 발발하게 되고 분단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4관에서는 본격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실시하고 이후 예비검속에 이르기까지 도민들의 고통과 수난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5관에서는 진상규명 및 피해자의 고통 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별관에서는 초토화 작전 시기에 은신처와 학살터의 공간이었던 다랑쉬굴의 발굴 현장을 재현해 놓고 있다.

지금까지 여섯 군데의 유적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렇게 선정된 유적지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 학습의 코스를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나누어 동·서부로 구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서부 체험 코스는 ‘첫알오름 학살터’, ‘하귀 영모원’, ‘진아영 할머니 삶터’로, 동부 체험 코스는 ‘제주4·3평화공원 및 기념관’, ‘너븐숭이 4·3 기념관’, ‘곤을동’ 등으로 구성할 것이다.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는 평화·인권과 연관시켜 유적지 현장 체험 학습 방안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3개 이상의 권역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동·서 지역의 모든 유적지를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 시간적인 제약이 뒤따르며, 학생들이 그 이상의 유적지를 체험하는 데에 체력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동부 지역의 학교에서는 동부 체험 코스를, 서부 지역의 학교에서는 서부 체험 코스를 선택하여 활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현장체험학습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IV. 제주4·3 유적지를 활용한 평화·인권 교수 학습 방안의 실제

### 1. 제주4·3 유적지를 활용한 평화·인권 교수 학습 목표 및 설계

이 장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주4·3과 그 유적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평화·인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현장 체험 학습 중심의 수업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습자가 제주4·3과 그 이후의 결과가 이전부터 어떠한 갈등으로 인해 일어났는가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제주4·3이라는 역사적 사실 속에서 평화·인권이라는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해방 이후 제주도의 배경과 제주4·3의 전개 과정에 대한 언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 제주도는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 속에서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전개되었는가를 제시해야만 비로소 학습자들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인권이 유린당하였고, 평화가 깨지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재구성한 자료를 이용한 강의식 수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물론 강의식 수업은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 효과를 저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sup>107)</sup> 하지만 한국 현대사는 이념과 같은 용어들로 인해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복잡한 구조로 뒤얽혀 있어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데에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강의식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연구된 여러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자료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광복 이후 제주도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왜 분단에

107) 최상훈 외 4인, 앞의 책, 2007, 219쪽.

이르게 되었는가?', '제주도 인민위원회와 미군정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 '미군정의 어떠한 정책으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전개 과정과 관련해서는 '1947년 3·1절 기념 대회 발포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미군정은 어떻게 조치하였는가?',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의 무장대가 왜 봉기를 일으켰는가?', '봉기 발발 직후, 미군정은 어떻게 조치하였는가?' 등을 파악해 본다. 이때 활동지에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제주4·3을 어떻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 평화·인권이 무엇이며, 이와 반대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학습자가 제주4·3을 통해 평화·인권의 소중함과 그 감수성을 가지게 한다. 앞서 광복 이후 제주도의 상황과 제주4·3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 부분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장면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사례나 장면으로는 대부분 제주도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모습들이 대부분이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장면을 통해 학습자는 평화와 인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으며, 그들의 아픔을 공유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중점을 두어 학살터와 잃어버린 마을과 같은 유적지를 중심으로 하는 현장 체험 학습 등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한다. 실제로 학살터와 잃어버린 마을과 같은 유적은 말 그대로 비평화(非平和)의 상황에서 억울하고 참혹하게 학살당한 인권 유린의 현장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당시 사건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만 단순히 현장 학습만으로는 학습자가 당시 사람들의 아픔을 공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교사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구성되어야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학습자가 제주4·3을 통해 정의감을 키우고, 더 나아가 이를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의지를 다지게 한다. 이 부분에서는 제주4·3 당시 도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 용기를 낸 인물들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평화·인권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귀리 사람들의 영모원 조성이나 제주4·3 평화 기념관 및 공원에 전시된 모습 등을 제시한다면, 학습자는 이로 인해 평화·인권을 위해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특히 여기서는 하귀리 사람들이 어떻게 영모원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제주4·3평화공원 및 기념관을 통해 제주4·3으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를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와 더불어 앞으로 제주4·3에 대해 어떠한 관심을 두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평화·인권을 위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이러한 토론을 바탕으로 평화·인권을 위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노력과 실천을 해야 하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제주4·3은 무엇인가를 담은 모듈별 영상 제작을 후속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제주4·3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평화·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행동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목표와 더불어 Ⅲ장에서 선정한 유적지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부 지역으로 나누어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을 구성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현장체험 학습의 단계에 따라 ‘사전 학습’, ‘현장 체험(답사)’, ‘사후 학습’ 등으로 나누어, 총 5차시의 모듈별 과제 해결 학습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동·서부의 코스 및 지도 계획, 교수-학습 지도안과 활동지를 마련하고자 한다.

‘사전 학습’ 단계에서는 현장 체험 단계에 앞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사 탐구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제주4·3의 배경과 전반적인 이해, 피해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유적지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현장 체험 학습’ 단계에서는 그 사건의 현장을 직접 봄으로써 당시 사건의 모습을 추체험해볼 수 있으며 교실 수업에서보다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데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폭력과 학살의 현장을 실제로 보면서 사전 학습 단계에서 학습하였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함으로써,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더 나아가 평화·인권 감수성을 느끼기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화해·상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평화·인권 교육의 현장을 실제로 봄으로써,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는 제주4·

3의 전개 과정 순서에 따라 각 유적에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당시 도민들이 어떠한 고통과 수난을 겪었으며, 이후에는 어떻게 화해와 상생으로 노력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을 기회를 갖고자 한다.

‘사후 학습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수업에서는 현장 체험 학습 단계에서 학습한 유적지를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제주4·3이 무엇이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평화·인권을 위한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추후 과제로 모듈별로 영상을 제작하여 제주4·3과 평화·인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한다.

## 2. 제주도 동부 지역 4·3 유적지를 활용한 평화·인권 교수 학습 방안

### 1) 사전 학습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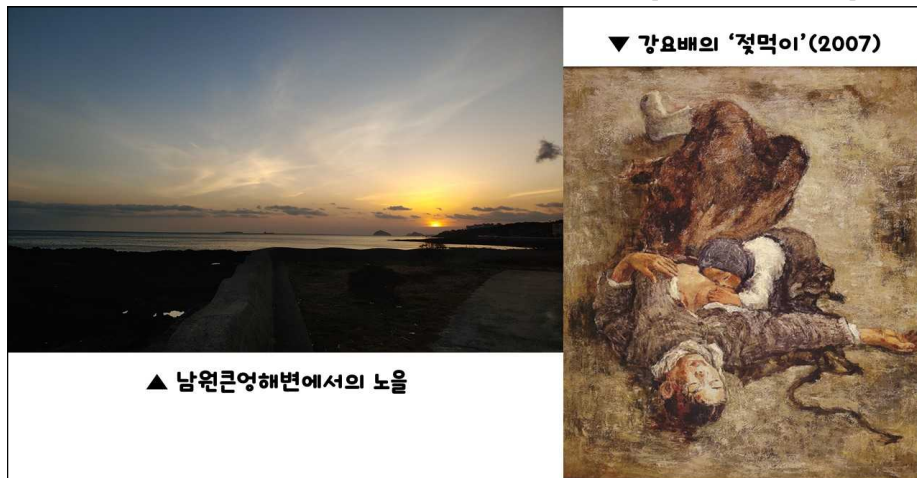
제주도 동부 지역의 사전 학습 단계의 수업의 주제는 ‘70년 전, 제주에서 무슨 일이?’로서, 현재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왜 약 70년 전에 제주4·3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인민위원회, 미군정, 제주도민 간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평화·인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이 수업의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다.

#### <표 4> 사전 학습 단계의 수업 목표 - [제주도 동부 지역]

- 
- ① 제주도의 해방 이후의 상황, 1947년 3·1절 발포 사건과 이후 미군정의 대응 등을 통해 제주4·3의 발발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 ② 제주도 동부 지역의 4·3 유적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통해 군·경과 서북청년회의 폭력과 학살로 인한 제주도민의 피해, 이후에 진실 회복과 화해·상생의 노력 등을 통해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

도입 과정에서는 ‘남원큰영해변’의 아름다운 모습과 강요배 화가의 ‘젓먹이(2007)’와 대조시켜 이번 수업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일으킬 수 있게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는 ‘남원큰영해변에서의 억새와 노을’처럼 그 자체로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한다. 이러한 모습과 반대로 강요배 화가의 ‘젓먹이(2007)’처럼, 약 70년 전만 해도 제주에는 당시 4:3 사건이 발발하고 이에 정부에 의한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마을이 불타고 도민들이 수난을 당했다는 사실에 관해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에 대한 PPT의 장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사전 학습 단계 수업에서의 ‘도입 과정’ PPT - [제주도 동부 지역]<sup>108)</sup>



전개 과정에서는 주로 PPT를 활용한 이야기식 형태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이야기식 수업은 ‘내러티브식 수업’이라고 한다. 물론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역사 해석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당시의 인물 간의 갈등 구조를 통해 그 본질과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 이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설명식 수업보다는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을 바탕으로 PPT를 통해 먼저, 광복 이후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미군정과 인민위원회의 각각 활동 및 정책을 통해서 제주도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1945년 9월~11월에 인민위원회가 중앙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조선공산당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음을 설

108) 강요배의 ‘젓먹이’ (2007)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2017, 103쪽’에서 재인용.

명한다. 특히 해방 이후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친일파를 처벌하고, 절간고구마 등 식량을 무상으로 배급하였으며, 농사를 도와주거나 농사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제주도민들이 인민위원회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줬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반면에 미군정은 일제 기구를 존속하였고, 미곡 정책과 같은 경제 정책이 실패하였으며, 부정부패로 의심받은 복시환(福市丸) 사건 등으로 인해 제주도민은 미군정을 불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절 발포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왜 무고한 제주도민 6명에게 발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제주도민들이 3·10 총파업을 통해 저항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그러나 미군정은 제주도민을 좌익으로 몰고 갔으며, 이후 제주도민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고문치사를 자행하였으며, 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이 왜 제주4·3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연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여기서는 광복 이후 한반도와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연표를 구성하였다. 연표는 역사적 사실을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배열한 표를 말한다. 이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사건의 흐름이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거나 다른 사건과 비교함으로써 그 시대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sup>109)</sup>

마지막으로 앞으로 체험하게 될 동부 지역의 유적과 연계하여 정부에 의한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이 어떠한 수난을 당하였으나, 현재 평화인권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서 사람은 죽인 것은 물론 마을을 불태워 없애버렸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특히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마을이 약 3만여 곳이 불 타 없어졌고, 대부분 중산간 마을이었지만 해안 마을도 피해를 당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곤을동'이라는 것을 언급한다.

또한 초토화 작전으로 인한 큰 피해 지역으로 '북촌리'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이틀 동안 400여 명의 주민을 학살한 '북촌 사건'이라는 제목의 Jtbc 차이나스 클래스 57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RYjUINJzjg>)을 3분 정도 보여준다. 이러한 영상은 『순이 삼촌』을 저술한 현기영 작가가 나와서 당시 '북촌 사건'에 대해서 핵심만 정리하여 이야기해준다. 이러한 영상을 통해 무장대

109) 최상훈 외 4인, 앞의 책, 2007, 150쪽.

에 의해 군인이 사살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군경 토벌대가 무고한 도민들 400여 명을 보복 학살했다는 사실을 알게끔 한다. 이를 통해서 폭력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군인들이 북촌리 주민들을 북촌초등학교에 집합시켜 마을을 불태우고 이들 중 몇 명만 총살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이후 군인들에 의해 학교 동쪽에 있는 ‘당팻’과 서쪽에 있는 지금의 너븐숭이 4·3기념관에 있는 ‘너븐숭이’으로 나누어 총살당했음을 설명해준다. 추가로 활동지에서 제시된 내용을 통해서 『순이 삼촌』이 상징하는 의미와 이러한 소설을 저술하여 작가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해준다.

제주4·3의 진실을 밝히고자 2000년 특별법 제정,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 및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 제주4·3의 진실 회복에 대한 노력이 있었음을 학생들에게 알려준다. 이를 바탕으로 ‘화해와 상생’을 추구하고 이러한 진실을 널리 알기 위한 장소인 ‘제주4·3평화공원’이 설립되었음을 학생들에게 알려준다. 그런 다음 학생들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해 모둠별로 개개인이 공유하여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런 다음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개인에게 미리 활동지를 제시하여 각 모둠원끼리 활동지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다음 차시부터 진행될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일정 계획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가 간단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현장 체험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금까지의 사전 학습 단계에서의 수업 지도안과 활동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사전 학습 단계의 교수-학습 지도안 - [제주도 동부 지역]

대단원명	Ⅷ. 근·현대 사회의 전개	차시	1/1
학습제목	70년 전, 제주에서 무슨 일이?	수업형태	이야기식, PPT, 모둠별 과제 학습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의 해방 이후의 상황, 1947년 3·1절 발포 사건과 이후 미군정의 대응 등을 통해 제주4·3의 발발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li> <li>• 제주도 동부 지역의 4·3 유적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통해 군·경과 서북청년회의 폭력과 학살로 인한 제주도민의 피해, 이후에 진실 회복과 화해·상생의 노력 등을 통해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li> </ul>		
수업자료	PPT 및 사진·영상 자료, 활동지	소요시간	45분

학습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시간	자료 및 유의
도입	동기 유발 새별오름의 아름다운 모습 vs '천명'	▶ 제주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새별오름의 노을 지는 모습과 강요배 화가의 '천명'을 간단히 소개. ▷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1	
	학습 목표 제시	▶ 본시 학습 내용에 관한 목표를 제시한다. ▷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습 목표를 읽는다.	1	
전개	광복 이후, 갈등의 시작과 증폭	▶ 광복 이후, 제주도의 상황, 미군정과 인민위원회, 제주도민의 관계를 파악. ▷ 미군정과 인민위원회의 정책 또는 활동을 중심으로 도민의 태도를 파악. ▶ 1947년 '3·1절 발포사건' 이후 미군정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파악. ▷ 1947년 '3·1절 발포사건' 이후 미군정의 대응을 통해 제주4·3의 원인을 이해.	9	* PPT 활용
	초토화 작전과 잃어버린 마을	▶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사람은 물론 마을이 사라졌으며,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소로 '곤을동' 소개. ▷ 초토화 작전이 무엇이며, 이로 인해 마을이 사라졌고, 그 대표 유적에는 '곤을동'이 있다는 것을 인식.	5	* 활동지 활용
	현기영의 『순이삼촌』과 '북촌 사건'	▶ 영상 속에서 작가가 말하는 '북촌 사건'이란 무엇이며, 활동지를 통해 『순이삼촌』의 상징적 의미와 저술로 인해 작가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추가 설명. ▷ 장면 속에 보이는 '북촌 사건'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활동지를 통해 『순이삼촌』의 상징적 의미와 저술로 인해 작가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학습.	6	* 영상 활용, 활동지 활용
	진실 회복과 화해·상생을 향해 나아가다.	▶ 4·3에 대한 진실 회복과 화해·상생을 위한 노력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위해 '제주 4·3 평화기념관'이 건립되었음을 설명. ▷ 4·3에 대한 진실 회복과 화해·상생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제주4·3 평화기념관'의 건립 목적을 학습.	5	* 활동지 활용
	모둠별 과제학습	▶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학생들이 모둠별로 공유하여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 ▷ 학생들은 모둠별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정리하는 시간 부여.	15	
정리	마무리	▶ 답사 일정 계획 및 안전 교육을 시행하여 현장에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3	* PPT 활용.

<그림 2> 사전 학습 단계의 수업 활동지 - [제주도 동부 지역]

**[광복 이후, 제주에서의 갈등의 시작과 증폭]**

- **광복 후 제주도의 경제적 상황** : 제주도는 광복 이후 귀환 인구로 인해 급격한 인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식량도 부족하였으며 실업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병의 유행과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 **제주도 인민위원회와 미군정** : ‘인민위원회’는 1945년 9월~11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조선 인민공화국’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각 지역의 자치 행정 기구이다. 이들은 문맹 퇴치, 친일파 청산 등 행정과 치안 업무를 담당하여, 제주도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편, 이후 제주도로 입도한 미군정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한된 곡물 정책을 폈으며, 행정 마비를 우려하여 일제의 관리들을 그대로 그 직책에 앉히게 하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민은 인민위원회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미군정에 대해 불만과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인민위원회가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커질 것을 염려한 미군정은 이들에 대해 견제와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1.

- **3·1절 발포 사건과 미군정의 대응** : 1947년 3·1절 기념대회가 끝난 이후, 지나가던 기마경찰에 의해 어린 아이가 말발굽에 치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를 목격한 군중들은 관덕정까지 기마경찰에게 쫓아가 시위를 하였고, 그때 숨어 있었던 육지 경찰의 발포로 인해 무고한 도민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도민들은 3월 10일 민·관 총파업을 통해 진상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미군정은 이를 무시하였다. 이후 미군정은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인식하여 좌익 세력은 물론 제주도민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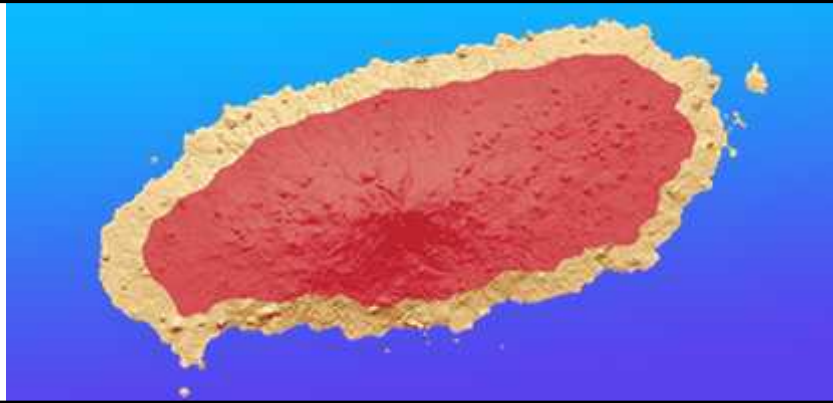
- **제주4·3 발발** : 1948년 이후, 이 과정에서 좌익 세력의 지하 조직이 노출되면서 위기를 맞이하였고, 청년 및 학생 등이 고문으로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결국 좌익 세력이었던 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에 의해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명분으로 4월 3일 제주도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 제주4·3 연표

### [폭력과 학살, 인권 탄압에서 인권 회복, 평화 추구]

- **제주의 평화가 깨지고 비극이 시작되다.** : 제주4·3은 '4·28 평화 협상'을 통해 조기 종결될 수 있었으나, 1948년 5월 1일에 우익 청년들에 의해 '오라리 방화 사건'이 발생하면서 평화는 깨지게 되었다.<sup>110)</sup>

- **정부 수립 이후의 초토화 작전** : 1948년 8월에는 남한에서, 같은 해 9월에는 북한에서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같은 해 11월 정부는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해안선 5km 이상의 중산간 지대를 다닐 경우, 폭도로 생각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여 일명 '초토화 작전'에 들어갔다.<sup>111)</sup> 이 과정에서 서북청년회와 군·경의 토벌대에 의해 제주도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 폭력 등이 계속되었다.



▲ 빨간색 부분 - 초토화 작전의 집중 지역<sup>112)</sup>

- **초토화 작전과 잃어버린 마을** : 이처럼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는 물론 마을도 사라져버렸다. 이 중 중산간 마을의 95% 이상이며, 약 39,000동 이상 불타 없어졌다고 하였다.<sup>113)</sup> 그런데 초토화 작전의 내용과 달리 해안마을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곤을동'이 있다.



▲ 초토화 작전으로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 터 전경 (제주시 화북1동 4429, 사라봉과 항구 근처 소재)<sup>114)</sup>

- **초토화 작전과 '북촌 사건', 현기영의 『순이 삼촌』과 '너븐숭이 4·3기념관'** : 현기영은 1979년에 『순이 삼촌』을 저술하였다. 이 소설은 '북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북촌 사건'은 1월 무렵에 와서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 2명의 군인이 숨지면서, 군·경 토벌대가 북촌리 주민을 보복 학살한 사건이다.<sup>115)</sup> 이 사건은 토벌대가 북촌리 주민을 북촌국민학교에 집합시켜 7~8명을 총살하였고, 나머지 인원은 동쪽 '당팻'과 서쪽 '너븐숭이'로 나누어 총살하였다.<sup>116)</sup>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던 『순이 삼촌』이 출판되자 정부에서는 이 소설의 출판을 금지시키고 그에게 온갖 고문을 자행하였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은폐된 4·3의 진실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sup>117)</sup> 또한 그의 작품과 관련 사료 검증 등을 통해 이러한 사건의 진실을 더욱더 알고자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이곳이 바로 '너븐숭이 4·3기념관'이다.



▲ 북촌초등학교<sup>118)</sup>와 너븐숭이 4·3기념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599 소재)<sup>119)</sup>

-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과 화해·상생을 위한 노력** : 1987년 민주화 운동의 분위기로 4·3의 진실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2000년에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진상조사를 하여 2003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같은 해에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직접 사과를 하였습니다. 또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제주4·3의 진실을 알리고자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2008년에 설립하였는데, 이곳이 바로 '제주4·3평화공원'입니다.



▲ 제주4·3평화공원 내 제주 4·3 평화 공원의 행방불명자들의 표석 (제주시 봉개동 237-2 소재)<sup>120)</sup>

11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위원회, 앞의 보고서, 2015, 534쪽.  
 111)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 ④ 초토화 작전』, 1997, 55쪽.  
 112) 4·3아카이브 - 사건으로 보는 4·3 '주민 집단희생과 사건 종결' (<http://www.43archives.or.kr/html/sub020301.do>), 재판집.  
 11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위원회, 위의 보고서, 2015, 537쪽.  
 114) 허호준, [제주 4·3] 핏빛 바다, '곤을동'에 가신 적이 있나요, 한겨레, 2021.04.03 (<https://www.hani.co.kr/arti/area/jeju/989455.html>).

1.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해방 이후의 제주도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제주4·3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

---

---

---

2.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곤을동' 마을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남게 되었나요?

---

---

---

3. 현기영의 『순이 삼촌』의 배경은 무엇이며, 소설 출판 이후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

---

---

---

---

4. 4·3의 진실을 회복하고 '화해와 상생'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이를 널리 알고자 무엇을 건립하였나요?

---

---

---

---

---

---

-4-

11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위원회, 앞의 보고서, 2015, 413쪽.

116) 제주도, 제주4·3연구소, 앞의 보고서, 도서출판 각, 2003, 378쪽

117) 현진호, 「제주 4·3공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접근 방향」, 『4·3과 역사』 7, 제주4·3연구소, 2007, 158쪽.

118) VISIT JEJU - '북촌초등학교' ([https://www.visitjeju.net/kr/detail/view?contentsid=CNTS\\_000000000022862](https://www.visitjeju.net/kr/detail/view?contentsid=CNTS_000000000022862)).

119) 2021년 9월 5일의 현재 모습.

120) 이병인 외 11인, 『중학교 역사 ②』, 비상교육, 2020, 205쪽.

## 2) 현장 체험 학습 단계

현장 답사 단계에서 제주도 동부 지역은 2차시에 학습한 유적의 내용을 바탕으로 코스를 ‘제주4·3평화공원 (제주시)’ - ‘너븐숭이 4·3기념관 (제주시)’ - ‘곤을동 (제주시)’ 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동부 지역의 코스의 특징은 추모 공간의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 서부에 비해 관람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특히 제주4·3평화공원은 한국 현대사 속 지역사로서 제주4·3에 대해 자세히 전시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학습의 부담을 가중해, 제주4·3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 속에서 제주4·3에 이르기까지 제주4·3을 보다 심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특히 제주4·3평화기념관을 탐방함으로써 서부 지역 코스의 유적에서 살펴볼 수 없는 피해자들의 수난과 고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코스 구성 및 지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6> 코스 구성 및 교수-학습 지도 계획 - [제주도 동부 지역]**

준비물	필기도구, 자료집	학습 형태	설명식 수업, 모둠별 과제 학습
코스	학교 → 제주4·3평화공원 → 너븐숭이 공원 → 곤을동 → 학교		
이동 수단	전세버스, 도보	소요 시간	약 5~6시간 예정
일정	시간	세부 내용	
	08:00~08:40	- 인원 확인 겸 주의 사항 전달, 이동	
	08:40~10:00	- 제주4·3평화공원 탐방 및 학습	
	10:00~10:30	- 인원 재확인 겸 이동	
	10:30~11:30	- 너븐숭이 4·3기념관 탐방 및 학습	
	11:30~12:05	- 인원 재확인 겸 이동	
	12:05~13:05	- 곤을동 탐방 및 학습	
	13:05~13:45	- 인원 재확인 겸 학교 도착	

먼저, 학습 이전에 안전 및 주의 사항에 다시 한 번 언급한 다음, 본 코스의 학습을 시작한다. 본 동부 지역 코스의 학습 첫 번째 장소는 제주4·3의 진실과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의 오늘까지의 성과를 기록한 장소로서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가는다. 이곳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현장 체험 이전에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시물과 영상을 통해서 당시 정부가 제주도민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피해자들의 수난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해 자행된 폭력과 인권 유린

으로부터 용기 있게 자신의 지역 주민들을 지켜낸 의인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평화·인권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상 규명의 성과와 관련된 전시물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화해·상생의 사례를 통해 평화적 관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관람을 마친 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은 미리 받은 활동지를 모둠별로 과제를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두 번째 장소는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첫 번째 지역 사례로서 ‘너븐숭이 4:3기념관’을 방문한다. 이곳은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어떠한 피해를 가져다주었으며, 현기영이 저술한 소설 『순이 삼촌』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활동지에 있는 역사적 사실과 소설 『순이 삼촌』을 읽게 하고 그 후 자유롭게 관람하게 한다. 관람 후 모둠별로 과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초토화 작전 시기에 군경이 북촌리의 사람들을 어떠한 이유로 죽게 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순이 삼촌』을 통해 제주4·3 초토화 작전의 사례로서 ‘북촌리’의 진실과 제주4·3의 진상 규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게다가 이 지역의 사건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다른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인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세 번째 장소는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두 번째 지역 사례로서 ‘곤을동’을 방문한다. 이곳은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서 왜 마을이 사라졌으며, 이곳에 있던 주민들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활동지에 제시된 역사적 사실과 증언 등을 읽게 하고, 그 후 자유롭게 관람하게끔 한다. 관람 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초토화 작전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산간 마을이 아니었음에도 왜 마을이 사라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이 지역의 사건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다른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폭력의 위험성을 깨닫고, 다른 사람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교수-학습 지도안과 활동지를 구성하였다.

<표 7> 현장 체험 학습 단계의 1차시 교수 학습 지도안 - [제주도 동부 지역]

대단원명	ⅩII. 근·현대 사회의 전개	차시	1/3
학습제목	제주도, 해방 이후 ~ 4·3 진상규명, 화해·상생	수업형태	자유 관람 및 모둠별 과제 학습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4·3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정부의 폭력을 비판하고,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다.</li> <li>• 4·3 의인들의 이야기와 다른 화해·상생 사례를 통해서 평화·인권의 중요성을 느끼고, 그러한 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다.</li> </ul>		
수업자료	답사 자료, 필기도구		

학습단계	주요학습내용	교수-학습	자료 및 유의
도입	동기 유발	<p>▶ 교사는 관람전에 '제주4·3평화공원' 속 전시물의 내용, 화해·상생과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중점으로 지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4·3이 왜 일어났고, 이를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그 결과 제주도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li> <li>- 4·3 의인들과 다른 화해·상생의 사례를 통해 평화·인권을 향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li> </ul> <p>▷ 학생들은 관람전에 '제주4·3평화공원'과 관련된 내용을 읽는다.</p>	
전개	관람	<p>▶ 활동지를 읽은 후,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 관람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p> <p>▷ '제주4·3평화공원'을 통해 4·3의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평화·인권의 중요성을 느끼고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p>	* 필요할 경우, 교사 설명 보충
	모둠별 과제 학습	<p>▶ 관람 후,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가 모둠별로 과제를 해결해보는 시간을 부여한다.</p> <p>▷ 학생들은 교사가 부여한 시간 내에 모둠별로 과제를 해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주4·3이 초기에 평화롭게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어떠한 사건 때문인가?</li> <li>2. 초토화 작전과 예비검속으로 인해 제주도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li> <li>3. 4·3 의인들의 이야기를 읽은 후, 만약 내가 당시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li> <li>4. 여전히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화해·상생에 이르기 위해서 가해자는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보여야 하는가?</li> </ol>	* 답사지 활용
정리		<p>▶ 교사는 학생들을 인원 점검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p> <p>▷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움직여 전세버스에 오른다.</p>	



<그림 3> 현장 체험 학습 단계의 1차시 수업 활동지 - [제주도 동부 지역]

[제주4·3 평화·인권의 장소, 제주4·3평화공원]

- **제주도, 해방의 기쁨에서 갈등의 시작 (1945년~1947년)** : 해방 이후 제주도에서는 1947년 3·1절 기념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발포 사건을 계기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10일, 제주도에서는 민·관 총파업이 일어났고, 미군정 경찰에게 진상규명 및 사과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에서는 오히려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검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Red Island'로 규정하였고, 극우 성향의 도시사로 교체하여 제주도민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 제2관 - 흔들리는 섬(해방과 좌절)<sup>121)</sup>

- **갈등의 폭발 그리고 비극 (1948년~1954년)** : UN에 의해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이 결정되면서 이러한 명분으로 남조선노동당(인민위원회에서 개편) 제주도당의 일부(무장대)가 1948년 4월 3일에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과 우익단체는 기습당하였고, 제주도에서는 5·10 총선거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8월에 남북 각각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 정부는 11월에 와서 제주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죄 없는 많은 사람이 마을을 잃어버리고 희생되어 갔습니다. 또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국적으로 좌익에 동조할 것 같은 사람들을 구금 또는 처벌하라는 '예비검속(豫備檢束)'이 내려지면서 제주도는 또다시 집단으로 학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54년 9월에 와서야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 제4관 - 불타는 섬(초토화와 학살)<sup>122)</sup>

- 상처 그리고 진상규명 그리고 화해·상생 (1960년 이후~) : 사건은 끝났지만, ‘빨갱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잃어버린 마을을 복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평생 고통에 시달렸다. 1960년 4·19혁명 이후 4·3 진상 규명이 시작되었으나, 5·16 군사 정변 이후 4·3 논의는 금기되고 더 나아가 은폐·왜곡되었다. 1987년 이후부터 다시 진상 규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2000년에 관련 특별법에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진상 조사를 통해 2003년에 결과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같은 해에 노무현 대통령이 유족들과 제주도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 2008년에는 제주4·3 평화공원이 완성되었으며, 2014년에는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또한 화해·상생을 위해 나아가려는 노력으로서 2003년에 하귀리에서 영모원을 조성하였고, 2013년에는 유족회와 제주 전직 경찰들로 구성된 제주 경우회가 화해 선언을 하였다.



▲ 제5관 - 평화의 섬(후유증과 진상규명 운동)123)

- 폭력으로부터 도민을 지켜내려 한 의인(義人)들124) :

- ① 김익렬 연대장 : 4·3 발발 초기, 유혈 사태를 막고자 4월 28일에 무장대와의 평화 협상을 추진하였다.
- ② 문형순 경찰서장 : 6·25 전쟁 때 예비검속 시기, 전국적으로 예비검속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를 거부하여 당시 성산면 지역의 주민을 학살로부터 구해내었다.
- ③ 김성홍 구장 : 초토화 작전 시기, 토벌대가 구장(이장)에게 당시 남원면 신흥리 주민의 성향을 캐물었지만, 무조건 ‘모른다.’고 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 ④ 의사 장시영 : 4·3 발발 이전, 김용철 고문 치사 사건 때 부검 의사로 참여하였으며, 경찰의 회유가 계속되었음에도 ‘타박에 의한 사망’이라는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 ⑤ 고희준 서청단원 : 초토화 작전 시기, 토벌대가 성산면 신흥리 주민들을 총살하려 하였다. 그런데 그가 이를 막았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 ⑥ 김순철 순경 : 초토화 작전 시기, 당시 조천면 신촌리가 북촌처럼 대학살이 될 뻔한 것을 본인이 나서 이를 막았다.
- ⑦ 장성순 경사 : 초토화 작전 시기, 당시 조천면 신흥리에 부임되었던 그는 “과거의 일은 묻지 않겠다.” 하여 신흥리 주민들은 살아남게 되었다.

121) 2021년 11월 2일 전시관 내부의 현재 모습.

122) 위와 동일.

★ 화해·상생을 통한 평화 추구, 인권 회복 :

- 용서와 화해·상생 그리고 평화·인권 : 만약 우리가 과거에 누군가를 괴롭혔던 일이 있어 이를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피해자의 '용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sup>125)</sup> 즉, 가해자가 타인의 인권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고, 지난 일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지켜본 피해자가 지난 일에 대한 용서·화해가 이뤄질 때, 비로소 과거의 일에 대한 분열과 갈등이 해결되어 '화해·상생'의 평화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 과거사에 대한 화해·상생 사례 : 이처럼 가해자가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이를 피해자가 용서함으로써 화해·상생의 모습을 보이는 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 때 자행된 유대인 학살에 대해 끊임없이 사과하고 이를 기억하고자 역사교육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 성과 이후, 당시 공수 대원의 양심 고백과 이를 용서해 준 유족의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재수의 난('신축교안') 제주도민과 제주 천주교회가 화해·상생을 선언하는 일도 있었다.



▲ 공수부대원과 5.18 유족<sup>126)</sup>

123) 2021년 11월 2일 전시관 내부의 현재 모습.

124) 한상희,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중학교 사회과 수업모듈 개발 : 제주 지역을 사례로」, 제주대 지리교육전공 박사학위, 2019, 135~136쪽;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997, 63쪽.

125) 현명호, 「분노와 한, 그리고 용서의 모색」, 『4·3과 역사』 11, 제주4·3연구소, 2011, 26쪽.

126) 양창희, '41년 만의 사죄...5.18 유족에게 사과한 공수부대원', KBS, 2021.03.17. (<https://new>

1. 제주에서 4·3이 초기에 평화롭게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어떠한 사건 때문인가요?

---

---

---

2. 초토화 작전과 예비검속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했나요?

---

---

---

3. 4·3 의인들 이야기를 읽은 후, 내가 만약에 당시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

---

---

---

4. 역사와 관련하여 여전히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엇이 있으며, 이에 대해 가해자는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보여야 할까요?

---

---

---

---

---

---

-4-

[s.kbs.co.kr/news/view.do?ncd=5141129](http://s.kbs.co.kr/news/view.do?ncd=5141129)).

<표 8> 현장 체험 학습 단계의 2차시 교수 학습 지도안 - [제주도 동부 지역]

대단원명	Ⅹ. 근·현대 사회의 전개	차시	2/3
학습제목	'북촌리 학살'의 현장, 너븐숭이 4·3기념관	수업형태	자유 관람 및 모둠별 과제 학습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촌리 학살'의 이야기를 통해 군·경이 가한 폭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li> <li>•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한 폭력의 사례와 제주의 '북촌리' 사례를 통해 폭력의 위험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li> </ul>		
수업자료	답사 자료, 필기도구		

학습단계	주요학습내용	교수-학습	자료 및 유의
도입	동기 유발	<p>▶ 교사는 관람전에 '북촌리 학살', 평화와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중점으로 지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경은 초토화 작전을 통해 북촌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가?</li> <li>- '북촌리 학살'과 다른 폭력의 사례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통해 왜 평화가 중요한가?</li> </ul> <p>▷ 학생들은 관람전에 초토화 작전과 '북촌리 학살'과 관련된 내용을 읽는다.</p>	
전개	관람	<p>▶ 활동지를 읽은 후,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 관람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p> <p>▷ '너븐숭이 기념관'을 통해 군·경의 잔혹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p>	* 필요할 경우, 교사 설명 보충
	모둠별 과제 학습	<p>▶ 관람 후,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가 모둠별로 과제를 해결해보는 시간을 부여한다.</p> <p>▷ 학생들은 교사가 부여한 시간 내에 모둠별로 과제를 해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북촌리 학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무엇이며, 군인들이 이를 어떻게 조치하였는가?</li> <li>2. '북촌리 학살'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음팡발에 비석들 왜 널브러져 있나?</li> <li>3. 우리 이러한 폭력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li> </ol>	* 답사지 활용
정리		<p>▶ 교사는 학생들을 인원 점검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p> <p>▷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움직여 전세버스에 오른다.</p>	

**['북촌리' 학살과 소설 『순이삼촌』 현장, 너븐숭이 4·3기념관]**

- **초토화 작전과 '북촌리 학살'** : '초토화 작전'은 그 단어 자체만으로 무시무시하지만, 실제로도 이 작전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례 중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례가 바로 '북촌리 학살'입니다. 1947년 1월 2연대의 일부 병력이 함덕의 대대본부로 가던 도중, 무장대의 기습으로 2명의 군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러한 사건은 '북촌리 학살'의 원인이 되었다.<sup>127)</sup> 마을의 원로들은 화가 미칠 것을 우려하여 시신을 들고 함덕 대대본부에 가져갔지만, 10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돌아오지 못하였다. 이후 북촌리에 군인들이 북촌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집합하라고 명령하였고, 나온 뒤 마을을 불태웠고 7명이 총살되었다. 나머지 사람들 중 군경 가족을 제외하여 4~50명 단위로 끌고 나가 학교 동쪽 당팻(할망당이 있는 곳의 밭)에서 1차로 학살되었고, 학교 서쪽 너븐숭이 옴팡밭(넓은 옴팍 팬 들판)에서 2차로 학살되었다. 또한 함덕으로 불려내어 추가로 희생되었다. 이때 희생당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성들도 있었다.<sup>128)</sup> 이와 관련된 현재 조사된 당시 희생자의 수는 299명이다.<sup>129)</sup> 그래서 음력 12월 18일만 되면 제사하느라 북적이며, 한때 '무남촌(無男村)'이라 불리기도 하였다.<sup>130)</sup>

- **'너븐숭이 4·3기념관'의 모습** : 이곳은 2008년에 완공되어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내부에는 북촌리의 4·3역사에 대한 설명이 전시되어 있으며, 4·3 당시의 기록물 사진과 진상규명부터 현재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다. 중앙에는 희생자 추모비와 집단학살 및 암매장한 장소인 2개의 구덩이가 있다. 또한 '북촌리 학살'을 배경으로 하였으며, 4·3을 널리 알린 소설 『순이삼촌』도 전시되어 있다. 외부에는 위령비, 순이삼촌 문학비, 옴팡밭 주변에 널브러진 비석, 어린아이들의 시신을 임시 매장한 애기 무덤 등이 있다.



▲ '너븐숭이 4·3기념관' 내 북촌리의 4·3역사<sup>131)</sup>



▲ '너븐숭이 4·3기념관' 밖 '애기 무덤'과 '옴팡밭과 널브러진 무덤들'<sup>13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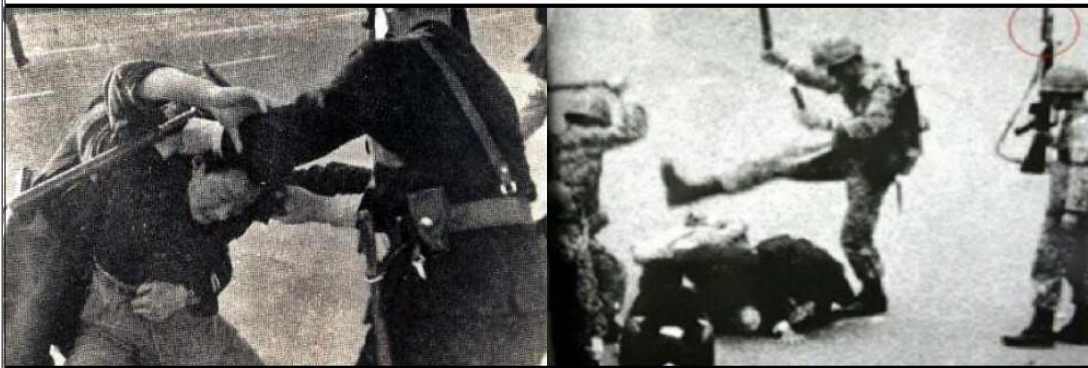
★ **평화의 개념과 중요성 :**

- **평화와 폭력 :** 평화란 ‘서로 아무런 일 없는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평화의 핵심은 바로 ‘관계와 폭력 제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란 단순히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폭력뿐만 아니라, 체제나 사상 등에 의해 가해지는 억압과 차별 등 간접적인 폭력을 포함합니다.<sup>133)</sup> 따라서 이러한 폭력들이 관계 안에서 모두 제거될 때, 비로소 평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관계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이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폭력의 형태로 해결하고자 할 때, 결국 국가 간에는 전쟁으로, 국가 내에서는 고문, 차별, 억압, 학살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전쟁, 고문, 차별, 억압, 학살 등으로 인해 우리의 인권은 침해당하거나 유린당할 수 있습니다.

★ **한국 현대사와 폭력, 비평화(非平和) :**

- **한국 현대사 속 폭력과 특징 :** 한반도는 1948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 각각 정부가 수립되었고, 각각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냉전이 시작됨에 따라 이념의 대립은 심화되었고, 결국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인명 및 물적 피해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반공(反共)을 국가의 목표로 삼고 이러한 명분으로 정권의 반대 세력에 대해 폭력과 억압, 차별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례들은 인권 침해를 동반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폭력과 비평화(非平和)의 사례, 제주4·3 :** 앞서 언급하듯이 ‘제주4·3’은 불안한 정치·사회·경제적 배경 속에서 1947년 ‘3·1절 발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를 수습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물론 4·3이 발생하였을 때, 4·28 평화 협상을 통해 신속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익 청년들에 의해 ‘오라리 방화 사건’이 자행되면서 평화는 깨졌고, 1948년 8월 정부 수립된 이후에는 죄 없는 제주도민을 비평화(非平和)의 현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 ‘4.19혁명’ (1960년)과 ‘5·18 민주화 운동’ (1980년)<sup>134)</sup>

1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2017, 102쪽.  
128) 4.3아카이브 - 4.3유적지 ‘너븐숭이 4.3기념관’ (<http://www.43archives.or.kr/viewHistoricSiteD.do?historicSiteSeq=39>).  
129) 제주4·3평화재단, 앞의 보고서, 2019, 170쪽.  
1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위의 책, 2017, 104쪽.  
131) 2021년 9월 5일의 현재 모습.  
132) 위와 동일.

1. '북촌리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무엇이며, 군인들은 이를 어떻게 조치하였는가?

---

---

---

---

---

---

2. '북촌리 학살'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옴팡밭에 비석들은 왜 널브러져 있나?

---

---

---

---

---

---

3. 우리가 이러한 폭력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

---

---

---

---

---

-7-

133) 김한중, 앞의 논문, 2013, 99쪽.

134) 이병기, '4월 혁명, 인천의 주체는?', 인천in, 2010.04.19. (<http://www.incheonin.com/news/>)



<표 9> 현장 체험 학습 단계의 3차시 교수 학습 지도안 - [제주도 동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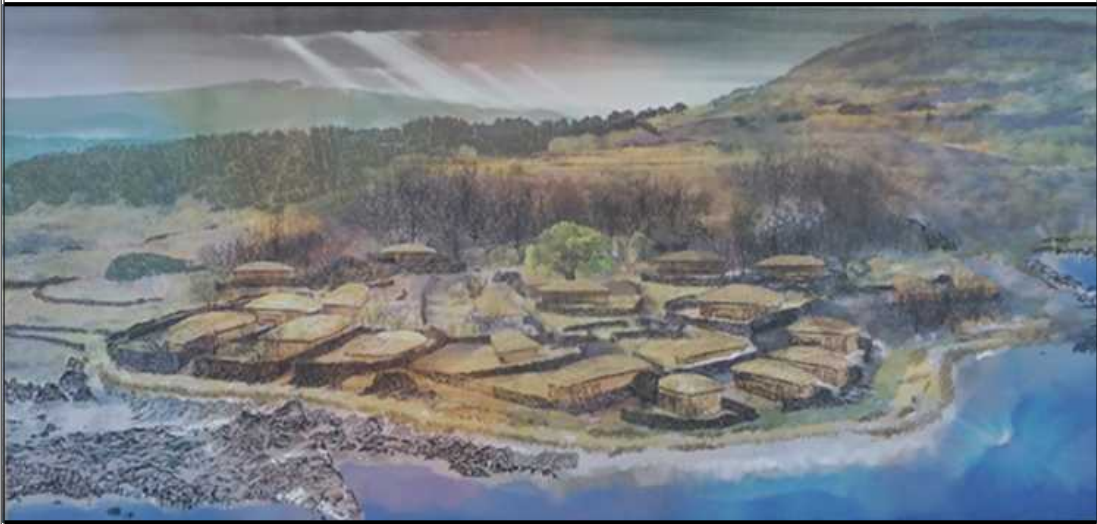
대단원명	Ⅹ. 근·현대 사회의 전개	차시	3/3
학습제목	사라져버린 마을, 곤을동	수업형태	자유 관람 및 모둠별 과제 학습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곤을동'의 조감도와 증언을 통해 당시 마을의 모습을 상상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li> <li>• 제주4·3 등 한국 현대사 속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정부의 폭력에 대해 비판할 줄 알고, 인권 존중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li> </ul>		
수업자료	답사 자료, 필기도구		

학습단계	주요학습내용	교수-학습	자료 및 유의
도입	동기 유발	<p>▶ 교사는 관람전에 '곤을동'과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곤을동은 원래 어떠한 모습이었으며 초토화 작전의 대상이 아닌 곤을동이 왜 사라졌는가?</li> <li>- 곤을동의 이야기와 다른 인권 침해의 사례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통해 왜 인권이 중요한가?</li> </ul> <p>▷ 학생들은 관람전에 교사가 지도한 대로, '곤을동'과 관련된 내용을 읽는다.</p>	
전개	관람	<p>▶ 활동지를 읽은 후,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 관람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p> <p>▷ '곤을동'의 조감도와 이야기를 통해 마을의 모습을 상상하고, 피해를 입은 고통에 대해 느끼는 시간을 갖는다.</p>	* 필요할 경우, 교사 설명 보충
	모둠별 과제 학습	<p>▶ 관람 후,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가 모둠별로 과제를 해결해보는 시간을 부여한다.</p> <p>▷ 학생들은 교사가 부여한 시간 내에 모둠별로 과제를 해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토화 작전'의 대상이 아닌 곤을동이 왜 한순간에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는가?</li> <li>2. 조감도와 비교하였을 때,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 있나요?</li> <li>3. 우리 주변에서는 어떠한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며, 나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어떻게 할 거인가?</li> </ol>	* 답사지 활용
정리		<p>▶ 교사는 학생들의 최종 인원 점검을 하고 학교로 복귀할 준비를 한다.</p> <p>▷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움직여 전세버스에 오른다.</p>	

articleView.html?idxno=1858); 김병택, '아! 5.18 광주민주화운동', 영남신문, 2018.12.01. (<https://www.yn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3>).

**['초토화 작전'과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 ]**

- 초토화 작전과 '곤을동' : '초토화 작전'은 인명 피해는 물론 가옥 피해도 가져다주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잃어버린 마을은 대부분 중산간 지역의 마을이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곤을동은 중산간 마을이 아니라 해안 마을이었다는 것이다. 해안 마을임에도 한순간에 잃어버린 마을이 된 것은 증언에 의해 종합해보면, 군인들이 장애 석축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군인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때 살아남은 병사가 무장대들이 곤을동에 들어갔다고 한 증언으로 인해 곤을동이 보복당한 것이다.<sup>135)</sup>



▲ '곤을동' 마을의 조감도<sup>136)</sup>

- '곤을동'의 피해<sup>137)</sup> : 1949년 1월 5일에 마을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10여 명의 젊은이를 별도봉 바닷가에서 총살하였다. 그런 다음 마을을 불태웠으며, 다음 날에는 남자 젊은이들을 숙청 '모살불'에서 학살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을에 남아 있는 집들도 모두 불태워 버렸다. 이때 사라진 마을 총 67호였으며, 희생당한 사람들은 30여 명이였다.



▲ 곤을동 터 집담 흔적<sup>138)</sup>

135) 4.3아카이브 - 4.3유적지 '곤을동(곤을동) 마을터' (<http://www.43archives.or.kr/viewHistori>)

★ 인권의 개념과 중요성 :

- 인권의 개념과 특성 : 인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인권은 법의 보장 이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 부여받은 권리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똑같이 누려 영원히 지속해야 하며,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인권의 역사 :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시민혁명부터 인권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UN에서는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하였을 때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인권 침해와 한국 현대사 :

- 한국 현대사 속 인권 침해의 특징 : 그러나 광복 이후부터 과거의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명시된 인권 보장에 대해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였습니다.

- 한국 현대사 속 또 다른 인권 침해 사례 :

- ①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이 박힌 채 발견된 김주열 열사 (1960년)
- ② 부산 형제 복지원 사건 (1975년 ~ 1987년)
- ③ 삼청교육대 (1980년 ~ 1981년)

- 또 다른 인권 침해 사례, 제주4·3 : '제주4·3'은 '남조선노동당'의 무장봉기로 인해 발생하였으나, 1948년 8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는 철저히 반공(反共)의 잣대로서 죄 없는 제주도민까지 대량 학살의 현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처럼 제주4·3은 정부에 의해서 제주도민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1975년 ~ 1987년)와 '제주4·3'(1948년 4월 3일 ~ 1954년 9월 21일)<sup>139)</sup>

cSiteD.do?historicSiteSeq=34).

136) 2021년 8월 29일의 현재 모습.

13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2017, 124쪽.

138) 2021년 8월 29일의 현재 모습.

139) 이가영, "남자들에 끌려간 언니 미안해요" 울음바다 된 형제복지원 재판, 중앙일보, 2020.10.15.

1. 초토화 작전의 대상이 아닌 곤을동이 왜 한순간에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나요?

---

---

---

---

---

2. 조감도와 비교하였을 때, 현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 있나요?

---

---

---

---

---

---

---

---

---

---

3.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인권 침해의 사례가 있나요? 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

---

-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95331#home>); 김병택, '제주 4.3 양민 학살 사건', 영남신문, 2021.01.25. (<https://www.yn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38>).

### 3) 사후 학습 단계

사후 학습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현장 체험 단계에서 진행하면서 답사지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하는 마무리의 단계이다. 구체적으로 현장 답사를 통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를 우리 실제 모습과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의 평화·인권적인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사후 학습 단계 수업의 주제는 ‘제주4·3을 통해 평화·인권을 향해 나아가다.’로서, 이 수업의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다.

**<표 10> 사후 학습 단계의 교수 학습 목표 - [제주도 동부 지역]**

- 
- ① 폭력과 인권 유린의 관점에서 동부 지역의 제주4·3 유적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 ②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평화·인권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위의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현장 체험’ 단계에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적의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화·인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논의하여 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기서 논의를 할 때 주의할 점은 해결할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모둠별일 경우에는 각 모듬의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게끔 학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sup>140)</sup> 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얻게 될 것이다.<sup>141)</sup>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듬별로 구성하여 우리가 느낀 제주4·3이 무엇이며, 이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평화·인권 행동을 위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제를 부여하여 추후에 이를 평가한다. 지금까지 사후 학습 단계를 위한 활동지와 지도안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40) 최상훈 외 4인, 앞의 책, 2007, 237~238쪽.

141) 강민정, 앞의 논문, 2006, 48쪽.

<표 11> 사후 학습 단계의 교수 학습 지도안 - [제주도 동부 지역]

대단원명	Ⅹ. 근·현대 사회의 전개	차시	1/1
학습제목	제주4·3을 통해 평화·인권을 향해	수업형태	발표 및 토론, 영상 제작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과 인권 유린의 관점에서 동부 지역의 제주4·3 유적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li> <li>•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문제에 대해 평화·인권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li> </ul>		
수업자료	PPT 및 사진·영상 자료, 활동지	소요시간	45분

학습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시간	자료 및 유의
도입	동기 유발	이전 차시 복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답사 단계에서 살펴 본 유적을 복기할 수 있도록 유도</li> <li>- 지금까지 살펴본 유적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나요?</li> <li>- 이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li> </ul> ▷ 교사의 질문에 반응.	3	
		학습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시 학습의 내용 목표를 제시.</li> <li>▷ 교사의 지시에 학습 목표를 읽는다.</li> </ul>	1	
전개	학습 내용	유적을 통해서 느낀 제주4·3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에게 유적의 의미를 설명하는 동시에 느낀 점에 대해 발표하도록 유도.</li> <li>▷ 체험한 유적에 대해 기억하여, 이를 설명하고 느낀 점에 대해 발표.</li> </ul>	15	* 답사지 활용.
		평화·인권을 위한 실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4·3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평화·인권을 향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유도.</li> <li>▷ 교사의 지시대로 이를 논의.</li> </ul>	20	* 활동지 활용.
정리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4·3의 소개 및 평화·인권 홍보 영상 제작을 과제로 제시.</li> </ul>	6	

<그림 6> 사후 학습 단계의 수업 활동지 - [제주도 동부 지역]

1. 답사지에서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현장 체험 학습에서 살펴본 유적에 대해 느낀 점을 쓰고, 내가 생각하는 제주4·3이란 어떠한 사건인지 적어봅시다.

---

---

---

---

---

---

---

---

---

---

---

2. 만약 우리 주변에 폭력과 인권 유린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자기 생각을 적어봅시다.

---

---

---

---

---

---

---

---

---

---

---

[과제] 제주4·3과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영상을 모듬원끼리 만드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제목 :

모듬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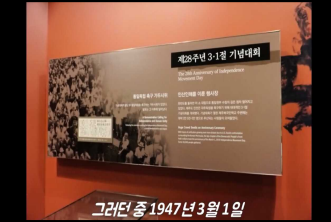











장면 구성	<Scene 1>	<Scene 2>	<Scene 3>
	<Scene 4>	<Scene 5>	<Scene 6>
	<Scene 7>	<Scene 8>	<Scene 9>
	<Scene 10>	<Scene 11>	<Scene 12>
	음악		



<예시> - 중학생이 바라본 4.3사건 (<https://www.youtube.com/watch?v=fAlflyvoEck>)

제목 :

모듬원 : \*\*\*, ●●●, ■■■, ▲▲▲ (제주시 모 중학교 2학년)

	<Scene 1>  그러던 중 1947년 3월 1일	<Scene 2>  어린이가 치이는 사건이 발생해	<Scene 3>  폭동이 일어난 것으로 오인해
	<Scene 4>  8명이 추락함	<Scene 5>  요구하며 전도적인 민간 총파업에 돌입했고	<Scene 6>  한국의 식량 생산으로
장면 구성	<Scene 7>  죽상간 소 개력 조 토와 자전으로 7년이 남게 자행된 학살들	<Scene 8>  도민의 1/9인 3만여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어	<Scene 9>  그에 따른 배상과 보상이 정액 되고 바라고 있어
	<Scene 10>  왜 죽임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무고한 생민들은	<Scene 11>  어떻게 하면 되지 못한 연사애	<Scene 12>  피해자 특마의 인 레조드미마의 인이 아니라
음악	없음		

### 3. 제주도 서부 지역 4·3 유적지를 활용한 평화·인권 교수 학습 방안

#### 1) 사전 학습 단계

제주도 서부 지역의 사전 학습 단계의 수업의 주제는 ‘70년 전, 제주에서 무슨 일이?’로서, 현재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왜 약 70년 전에 제주4·3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인민위원회, 미군정, 제주도민 간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평화인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이 수업의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다.

<표 12> 사전 학습 단계의 교수 학습 목표 - [제주도 서부 지역]

- 
- ① 제주도의 해방 이후의 상황, 1947년 3·1절 발포 사건과 이후 미군정의 대응 등을 통해 제주4·3의 발발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 ② 제주도 서부 지역의 4·3 유적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통해 군·경과 서북청년회의 폭력과 학살로 인한 제주도민의 피해, 이후에 진실 회복과 화해·상생의 노력 등을 통해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 

도입 과정에서는 ‘새별오름’의 아름다운 모습과 강요배 화가의 ‘천명(1991)’과 대조시켜 이번 수업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일으킬 수 있게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는 ‘새별오름에서의 역사와 노을’과 같이 지나가면서 그 자체로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한다. 그러나 강요배 화가의 ‘천명(1991)’처럼, 약 70년 전만 해도 제주주는 당시 4·3 사건이 발발하고 이에 정부에 의한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마을이 불타고 도민들이 수난을 당했다는 사실에 관해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에 대한 PPT의 장면 아래와 같다.

<그림 7> 사전 학습 단계 수업에서의 '도입 과정' PPT - [제주도 서부 지역]<sup>142)</sup>



전개 과정에서는 주로 PPT를 활용한 이야기식 형태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업 방식을 바탕으로 PPT를 통해 먼저, 동부 지역의 교수-학습 방향과 마찬가지로 광복 이후 미군정과 인민위원회, 미군정과 제주도민의 관계를 통해서 제주도가 어떠한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인민위원회가 무엇이며, 해방 이후 제주도의 인민위원회가 제주도민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이 인민위원회에 대해 호의적인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반면에 미군정은 일제 경찰을 재임용하였으며, 계속된 미군 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해, 제주도민은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이러한 상황 이후에 '1947년 3·1절 발포 사건'과 3·10 총파업이 일어났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미군정은 제주도민을 더욱 거세게 탄압하여 몰아갔다. 1948년 UN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결정되고 미군정에 의해 남로당 제주도당의 조직이 노출되자, 남로당 제주도당의 일부가 미군정의 계속된 도민에 대한 탄압과 UN의 단독 정부 수립 결정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제주4·3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체험하게 될 서부 지역의 유적과 연계하여 정부에 의한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이 어떠한 수난을 당하였으나, 현재 평화·인권을 위해

142) 강요배의 '천명' (1991)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4·3이 머우파?』, 도서출판 각, 2018, 30~31쪽'에서 재인용.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초토화 작전의 피해자였던 故 무명천 할머니 제주4·3 70주년 평화와 인권 그림책으로 ‘무명천 할머니’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vdhfF2iDQw>)을 3분 정도 보여준다. 이러한 영상을 통해 학생들이 군경 토벌대에 의한 초토화 작전이 얼마나 무자비했는가를 상상하게끔 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진아영 할머니가 생전에 어떠한 고통을 안고 사셨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또한 제주4·3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에서는 6·25전쟁이 발발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이승만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예비검속(豫備檢束)’에 대한 지시를 내린 사실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지시로 인해서 제주도에서는 군경 토벌대들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대부분 즉결 처분한 사실에 대해 말해준다. 그러한 흔적이 남아 있는 대표적인 장소로서 ‘첫알오름 학살터’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제주4·3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시되었지만, 2000년 특별법 제정,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 발표 및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을 통해 제주4·3의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에 대한 노력이 있었음을 학생들에게 알려준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지역 자체에서도 ‘화해와 상생’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이를 보여주는 장소가 ‘영모원’임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그런 다음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개인에게 미리 활동지를 제시하여 각 모둠원끼리 활동지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교사는 다음부터 현장 답사가 진행될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현장 답사 시에 혹시 모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안전 교육을 시행하며 답사 일정과 복장, 준비물 등에 대해 공지해주어 마무리 짓는다. 지금까지의 사전 학습 단계에서 제주도 서부 지역 2차시의 수업 지도안과 활동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3> 사전 학습 단계의 교수 학습 지도안 - [제주도 서부 지역]

대단원명	Ⅹ. 근·현대 사회의 전개	차시	1/1
학습제목	70년 전, 제주에서 무슨 일이?	수업형태	이야기식, PPT, 모둠별 과제 학습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의 해방 이후의 상황, 1947년 3·1절 발포 사건과 이후 미군정의 대응 등을 통해 제주4·3의 발발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li> <li>• 제주도 동부 지역의 4·3 유적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통해 군·경과 서북청년회의 폭력과 학살로 인한 제주도민의 피해, 이후에 진실 회복과 화해·상생의 노력 등을 통해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li> </ul>		
수업자료	PPT 및 사진·영상 자료, 활동지	소요시간	45분

학습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시간	자료 및 유의
도입	동기 유발	새별오름의 아름다운 모습 vs '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새별오름의 노을 지는 모습과 강요배 화가의 '천명'을 간단히 소개.</li> <li>▷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li> </ul>	1	
	학습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시 학습 내용에 관한 목표를 제시한다.</li> <li>▷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습 목표를 읽는다.</li> </ul>	1	
전개	학습 내용	광복 이후, 갈등의 시작과 증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복 이후, 제주도의 상황, 미군정과 인민위원회, 제주도민의 관계를 파악.</li> <li>▷ 미군정과 인민위원회의 정책 또는 활동을 중심으로 도민의 태도를 파악.</li> <li>▶ 1947년 '3·1절 발포사건' 이후 미군정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파악.</li> <li>▷ 1947년 '3·1절 발포사건' 이후 미군정의 대응을 통해 제주4·3의 원인을 이해.</li> </ul>	9	* PPT 활용
		초토화 작전의 피해자,故 진아영 할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故 진아영 할머니와 관련된 영상을 제시하여, 진정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감수성을 승화가 이어지도록 유도.</li> <li>▷ 장면 속에 보이는 故 진아영 할머니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 집중하며 시청.</li> </ul>	6	* 영상 활용, 활동지 활용
		6·25전쟁과 제주지역의 예비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지를 부여하여, '예비검속'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 대표적인 현장으로 '섯알오름 학살터'를 소개.</li> <li>▷ 교사의 설명을 통해 '예비검속'이 무엇이고, 이러한 모습이 남아 있는 '섯알오름 학살터'의 존재를 인식.</li> </ul>	5	* 활동지 활용
		진실 회복과 화해·상생을 향해 나아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화해·상생을 위한 노력에 관해 설명하고, 그 사례로서 '영모원'을 소개.</li> <li>▷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화해·상생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그 사례로서 '영모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li> </ul>	5	
		모둠별 과제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학생들이 모둠별로 공유하여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li> <li>▷ 학생들은 모둠별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정리하는 시간 부여.</li> </ul>	15	
정리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사 일정 계획 및 안전 교육을 시행하여 현장에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li> </ul>	3	* PPT 활용.	

<그림 8> 사전 학습 단계의 수업 활동지 - [제주도 서부 지역]

[광복 이후, 제주에서의 갈등의 시작과 증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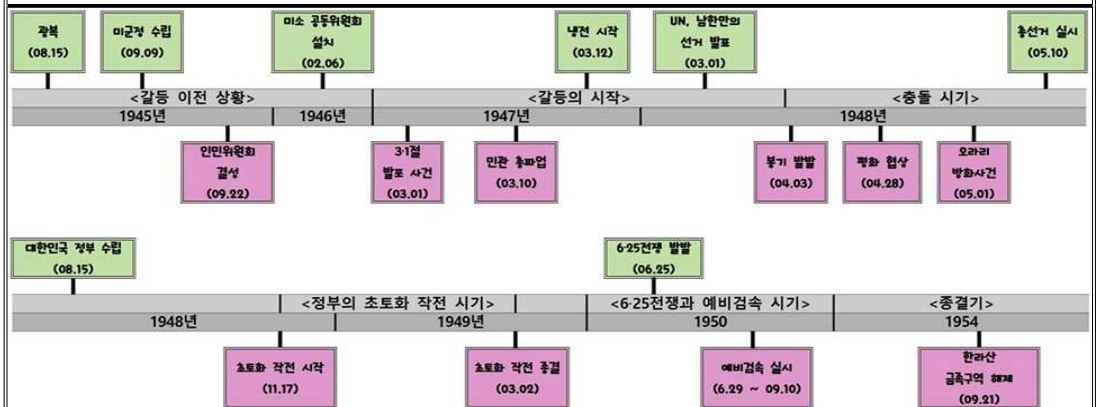
- **광복 후 제주도의 경제적 상황** : 제주도는 광복 이후 귀환 인구로 인해 급격한 인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식량도 부족하였으며 실업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병의 유행과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 **제주도 인민위원회와 미군정** : ‘인민위원회’는 1945년 9월~11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조선 인민공화국’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각 지역의 자치 행정 기구이다. 이들은 문맹 퇴치, 친일파 청산 등 행정과 치안 업무를 담당하여, 제주도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편, 이후 제주도로 입도한 미군정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한된 곡물 정책을 폈으며, 행정 마비를 우려하여 일제의 관리들을 그대로 그 직책에 앉히게 하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민은 인민위원회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미군정에 대해 불만과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인민위원회가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커질 것을 염려한 미군정은 이들에 대해 견제와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1.

- **3·1절 발포 사건과 미군정의 대응** : 1947년 3·1절 기념대회가 끝난 이후, 지나가던 기마경찰에 의해 어린 아이가 말발굽에 치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를 목격한 군중들은 관덕정까지 기마경찰에게 쫓아가 시위를 하였고, 그때 숨어 있었던 육지 경찰의 발포로 인해 무고한 도민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도민들은 3월 10일 민·관 총파업을 통해 진상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미군정은 이를 무시하였다. 이후 미군정은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인식하여 좌익 세력은 물론 제주도민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다.

- **제주4·3 발발** : 1948년 이후, 이 과정에서 좌익 세력의 지하 조직이 노출되면서 위기를 맞이하였고, 청년 및 학생 등이 고문으로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결국 좌익 세력이었던 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에 의해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명분으로 4월 3일 제주도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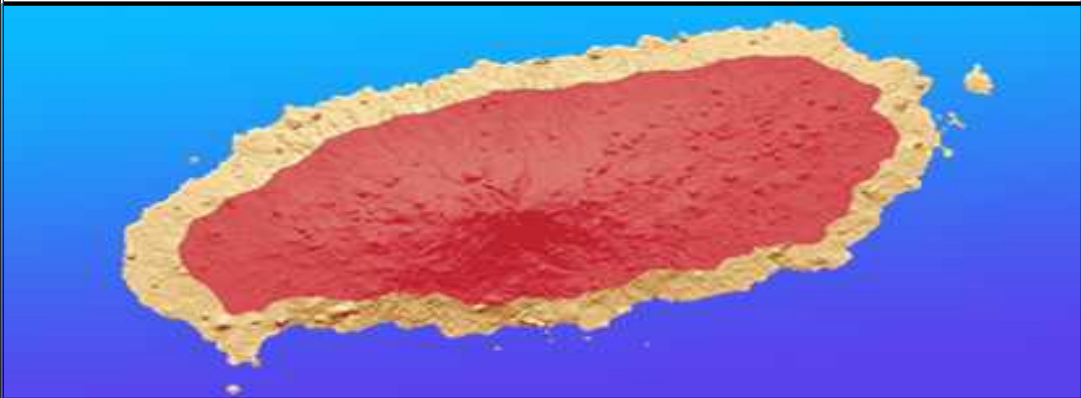


▲ 제주4·3 연표

**[폭력과 학살, 인권 탄압에서 인권 회복, 평화 추구]**

- **제주의 평화가 깨지고 비극이 시작되다.** : 제주4·3은 ‘4·28 평화 협상’을 통해 조기 종결될 수 있었으나, 1948년 5월 1일에 우익 청년들에 의해 ‘오라리 방화 사건’이 발생하면서 평화는 깨지게 되었다.<sup>143)</sup>

- **정부 수립 이후의 초토화 작전** : 1948년 8월에는 남한에서, 같은 해 9월에는 북한에서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같은 해 11월 정부는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해안선 5km 이상의 중산간 지대를 다닐 경우, 폭도로 생각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여 일명 ‘초토화 작전’에 들어갔다.<sup>144)</sup> 이 과정에서 서북청년회와 군·경의 토벌대에 의해 제주도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 폭력 등이 계속되었다.



▲ 빨간색 부분 - 초토화 작전의 집중 지역<sup>145)</sup>

- **초토화 작전의 공포와 트라우마** :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대부분 제주도민은 군·경과 서북청년회에 의해 학살되었다. 그중 일부는 이러한 학살로부터 목숨을 건졌지만, 육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로서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故 진아영 할머니’이다.



▲ 故 진아영 할머니의 생전 모습(고향 : 한경면 판포리 → 사건 이후 : 한림읍 월령리)<sup>146)</sup>

- **6·25전쟁 발발과 예비검속** :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 이념 대립의 전쟁이자 우리 민족 간의 비극을 가져온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는 전국적으로 ‘예비검속’이라 하여, 북한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가두거나 즉결 처분을 하게끔 지시하였다. 이때 예비검속의 기준은 크게 A, B, C, D로 나누었으며, 특히 D 또는 C 등급이 집중 대상이었으나 사실상 대상자 개인의 성향이나 태도 등 자의적 기준으로 판단되었다.<sup>147)</sup>

- **제주도에서의 예비검속** : 한편, 제주도에서는 4·3은 무장대 총책임자인 이덕구가 사살되면서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에서도 예비검속에 대한 중앙의 지시에 따르게 되면서, 사실상 4·3의 비극은 여전히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경은 제주도민을 ‘예비검속의 대상’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들을 학살의 현장으로 몰아넣었다. 이때 당시의 피해 실태를 살펴보면, 신고자 수 49명과 미신고자 17명으로 총 566명이 학살되었다고 한다.<sup>148)</sup>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섯알오름 학살터’입니다.



▲ 제주도 예비검속의 대표적인 사례 - ‘섯알오름 학살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590-3 소재 )<sup>149)</sup>

14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위원회, 앞의 보고서, 2015 (초판, 2003), 534쪽.  
 144)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997, 55쪽.  
 145) 4.3아카이브 - 사건으로 보는 4·3 ‘주민 집단희생과 사건 종결’ (<http://www.43archives.or.kr/html/sub020301.do>), 재판집.  
 146) 홍의석(2018.08.12.), “(16) 총에 턱을 맞은 무명천 할머니...악몽이 그녀를 지배했다.”, 제주일보.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9403>)  
 147) 조정희, 앞의 논문, 2013, 49쪽.  
 148) 제주4·3평화재단, 앞의 보고서, 2019, 491쪽.



- **정부의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과 화해·상생의 노력** : 제주4·3은 1954년 9월에 한라산 통행이 해제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4·3에 대한 논의를 금지했으며, 약 30여 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분위기로 4·3의 진상규명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2000년에 와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진상조사를 하여 2003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같은 해에 정부는 당시 사건에 대해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직접 사과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유족회와 경우회(퇴직한 경찰 단체) 간의 화해가 있었고, 2014년에는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국방부의 공식적 사과까지 이르렀습니다.

- **지역의 화해·상생 노력** : 2003년에 정부에 의해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제주4·3의 진실은 회복되었으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경우회는 물론 국방부에서도 제주4·3을 여전히 ‘폭동’으로 보고 있었습니다.<sup>150)</sup> 그런데도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상님들의 희생을 치유하고 주민들끼리 서로 화합하자는 움직임에 의해 무덤이 세워졌는데, 이곳이 바로 ‘영모원’입니다.



▲ 영모원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134-1 소재)<sup>151)</sup>

149) 2021년 7월 25일의 현재 모습.

150) 허호준, 「제주 4·3 연구 30년 - 진실과정의 추구를 위한 과정 -」,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1), 제주학회, 2018, 115쪽.

151) 2021년 11월 21일의 현재 모습.

1.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해방 이후의 제주도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제주4·3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

---

---

---

2.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故 진아영 할머니는 모습은 어떠하며, 왜 그렇게 되었나요?

---

---

---

---

3. 예비검속은 무엇이며,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

---

---

---

---

---

4. 4·3의 진실을 회복하고 '화해와 상생'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부합하여 '화해와 상생'을 보여주는 유적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

---

---

---

---

---

## 2) 현장 체험 학습 단계

현장 답사 단계에서 제주도 서부 지역은 2차시에 학습한 유적의 내용을 바탕으로 코스를 ‘진아영 할머니 삶터 (제주시)’ - ‘섯알오름 학살터 (서귀포시)’ - ‘하귀 영모원 (제주시)’ 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서부 지역의 코스의 특징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왕복하는 거리여서, 실제로 예상 이동 및 학습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주4·3의 전개 과정을 초토화 작전, 예비검속, 진상규명 이후 등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인권 의식을 제고시키고 제주4·3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코스 구성 및 지도 계획은 아래와 같다.

<표 14> 코스 구성 및 교수-학습 지도 계획 - [제주도 서부 지역]

준비물	필기도구, 자료집	학습 형태	설명식 수업, 모둠별 과제 학습
코스	학교 → 진아영 할머니 삶터 → 셋알오름 학살터 → 영모원 → 학교		
이동 수단	전세버스, 도보	소요 시간	약 5~6시간 예정
일정	시간		세부 내용
	08:00~08:40		- 인원 확인 겸 주의 사항 전달, 이동
	08:40~09:45		- 진아영 할머니 삶터 탐방 및 학습
	09:25~10:05		- 인원 재확인 겸 이동
	10:05~11:05		- 셋알오름 학살터 탐방 및 학습
	11:05~12:05		- 인원 재확인 겸 이동
	12:05~13:05		- 영모원 탐방 및 학습
	13:05~13:35	- 인원 재확인 겸 학교 도착	

먼저, 학습 이전에 안전 및 주의 사항에 다시 한 번 언급한 다음, 본 코스의 학습을 시작한다. 본 서부 지역 코스의 학습 첫 번째 장소는 초토화 작전의 피해자로서 ‘故 진아영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만나기 위해 ‘故 진아영 할머니 삶터’를 찾아간다. 삶터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비록 초토화 작전에서 살아남았지만, 생전에 어떻게 지냈는지 등 그녀의 아픔에 대해 학생들이 공감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활동지에 제시된 할머니와 관련된 내용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읽게끔 하고 그 후 삶터를 자유롭게 관람하게끔 유도한다. 관람을 마친 후 학생들은 미리 받은 활동지를 모둠별로 과제를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할머니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무명천 할머니’ 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를 적어보게 한다. 또한 이후 할머니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시나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갖게 한다. 시나 편지 등 인물에 대한 추체험을 통한 글쓰기는 학생들의 평화나 인권 등 가치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다.<sup>152)</sup>

두 번째 장소는 6·25전쟁 발발 동시에 이루어진 예비검속의 현장으로서 ‘첫알오름 학살터’를 방문한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이승만 정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예비검속에 들어갔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첫알오름 학살터’이다. 이곳과 관련하여 군경이 예비검속이라는 명분으로 제주도민을 얼마나 처참하게 학살하였는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활동지에 있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 증언을 읽게 하고 그 후 자유롭게 관람하게끔 한다. 관람 후 모둠별로 과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군경이 예비검속을 통해 제주도민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에 대해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좌우의 구덩이가 있는데, 각각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희생당하였는지를 적어보게 한다.

세 번째 장소는 제주4·3의 은폐된 진실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화해·상생’의 가치를 직접 실천한 ‘영모원’을 방문한다. 하귀 주민들은 ‘빨갱이’라고 낙인을 벗고 마을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진상 규명의 결과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곳을 조성하게 되었다.<sup>153)</sup> 즉, 아픔을 극복하고 마을의 평화 도모, 정체성 회복 등을 위해 ‘화해와 상생’을 향해 나아갔다는 의미를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활동지에 있는 관련 비문(碑文)을 읽게끔 하고 그 후 관람 시간을 부여한다. 모둠별 과제를 시간에서는 하귀 영모원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묻혀있고 이곳을 왜 조성하였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교수·학습 지도안과 활동지를 구성하였다.

152) 황현정, 앞의 논문, 2016, 243쪽.

153) 하명실, 앞의 논문, 2017, 53쪽.

<표 15> 현장 답사 단계의 1차시 교수 학습 지도안 - [제주도 서부 지역]

대단원명	Ⅹ. 근·현대 사회의 전개	차시	1/3
학습제목	'초토화 작전'과 인권 유린의 피해자, 故 진아영 할머니	수업형태	자유 관람 및 모둠별 과제 학습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故 진아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li> <li>• 제주4·3 등 한국 현대사 속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정부의 폭력에 대해 비판할 줄 알고, 인권 존중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li> </ul>		
수업자료	답사 자료, 필기도구		

학습단계	주요학습내용	교수-학습	자료 및 유의
도입	동기 유발	<p>▶ 교사는 관람전에 '故 진아영 할머니'와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할머니에게 어떠한 피해를 가져다주었으며,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하였나?</li> <li>- 할머니와 다른 인권 침해의 사례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통해 왜 인권이 중요한가?</li> </ul> <p>▷ 학생들은 관람전에 교사가 지도한 대로, '故 진아영 할머니'와 관련된 내용을 읽는다.</p>	
전개	관람	<p>▶ 활동지를 읽은 후,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 관람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p> <p>▷ '진아영 할머니 삶터'를 통해 할머니의 생애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역자 사진 2~3개의 변화, 생활 흔적 등.)</p>	* 필요할 경우, 교사 설명 보충
	모둠별 과제 학습	<p>▶ 관람 후,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가 모둠별로 과제를 해결해보는 시간을 부여한다.</p> <p>▷ 학생들은 교사가 부여한 시간 내에 모둠별로 과제를 해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故 진아영 할머니'가 왜 '무명천 할머니'라 불리게 되었는가?</li> <li>2. 그녀를 위한 시나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진다.</li> <li>3. 우리 주변에서는 어떠한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며, 나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li> </ol>	* 답사지 활용
정리		<p>▶ 교사는 학생들을 인원 점검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p> <p>▷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움직여 전세버스에 오른다.</p>	

**['초토화 작전'과 인권 유린의 피해자, 故 진아영 할머니]**

- 초토화 작전과 '무명천 할머니'<sup>154)</sup> : '초토화 작전'은 그 단어 자체만으로 무시무시하지만, 실제로도 이 작전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는 물론 생존자, 유족들에게는 '레드 콤플렉스'라는 공포와 트라우마 등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피해자가 바로 故 진아영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원래 한경면 판포리에 살고 있었는데, 1949년 1월에 무장대가 침입했다는 소식을 들은 국군 2연대와 한림지서 경찰서의 합동 토벌대가 마을에 들어닥쳤다. 이때 경찰은 그녀를 무장대로 오인하였으며, 그녀는 토벌대에 의한 총을 맞고 아래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녀는 다행히 살아남지만, 평생을 자기 얼굴을 가려야 했고, 그때부터 얼굴에 무명천을 감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를 보고 사람들은 '무명천 할머니'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 故 진아영 할머니 삶터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381 소재)<sup>155)</sup>

- 故 진아영 할머니 생애와 삶터<sup>156)</sup> : 진아영 할머니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한림읍 월령리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잠깐 집을 비울 때도 안팎으로 자물쇠를 꽂고 잠고고 다녔지.”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웃이었던 송민순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턱이 없어서 입 안이 심하게 헐었지. 그러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진아영 할머니는 아래턱을 잃게 되면서 위장병과 영양실조에 시달리셨고,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 갈 정도로 후유증을 고생하셨으며, 결국 할머니는 2004년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4년 뒤, 그녀의 생가를 복원하였으며, 이를 현재 아래와 같은 전시관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 삶터 내부 모습<sup>157)</sup>

★ **인권의 개념과 중요성 :**

- **인권의 개념과 특성 :** 인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인권은 법의 보장 이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 부여받은 권리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똑같이 누려 영원히 지속해야 하며,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인권의 역사 :**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시민혁명부터 인권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UN에서는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하였을 때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인권 침해와 한국 현대사 :**

- **한국 현대사 속 인권 침해의 특징 :** 그러나 광복 이후부터 과거의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명시된 인권 보장에 대해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였습니다.

- **한국 현대사 속 또 다른 인권 침해 사례 :**

- ①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이 박힌 채 발견된 김주열 열사 (1960년)
- ② 부산 형제 복지원 사건 (1975년 ~ 1987년)
- ③ 삼청교육대 (1980년 ~ 1981년)

- **또 다른 인권 침해 사례, 제주4·3 :** ‘제주4·3’은 ‘남조선노동당’의 무장봉기로 인해 발생하였으나, 1948년 8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는 철저히 반공(反共)의 잣대로서 죄 없는 제주도민까지 대량 학살의 현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처럼 제주4·3은 정부에 의해서 제주도민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 ‘삼청교육대’ (1980년 ~ 1981년)와 ‘제주4·3’(1948년 4월 3일 ~ 1954년 9월 21일)<sup>158)</sup>

154) 4.3아카이브 - 4·3유적지 ‘진아영할머니 집터’ (<http://www.43archives.or.kr/viewHistoricSiteD.do?historicSiteSeq=5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위원회, 앞의 보고서, 2015, 53쪽, 539쪽.

155) 2021년 7월 25일의 현재 모습.

156) 위의 사이트.

157) 무명천 진아영 삶터 보존회 (<http://43moomyungchun.kr>).

1. 故 진아영 할머니는 초토화 작전과 관련하여 왜 '무명천 할머니'로 부르게 되었나요?

---

---

---

---

---

2. 故 진아영 할머니를 위한 시나 편지를 적어봅시다.

---

---

---

---

---

---

---

---

---

---

3.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인권 침해의 사례가 있나요? 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

---

---

---

---

-3-

15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삼청교육대(三清教育隊)'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6508#>); 김병택, 앞의 기사, 2021.01.25.



<표 16> 현장 체험 학습 단계의 2차시 교수 학습 지도안 - [제주도 서부 지역]

대단원명	ⅩII. 근·현대 사회의 전개	차시	2/3
학습제목	제주 예비검속, '첫알오름 학살터'	수업형태	자유 관람 및 모듬별 과제 학습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검속과 '첫알오름 학살터'의 이야기를 통해 군·경이 가한 폭력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li> <li>•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한 폭력의 사례와 제주의 '첫알오름'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li> </ul>		
수업자료	답사 자료, 필기도구		

학습단계	주요학습내용	교수-학습	자료 및 유의
도입	동기 유발	<p>▶ 교사는 관람전에 예비검속과 '첫알오름 학살터', 평화와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중점으로 지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5전쟁 발발 당시 정부에서는 예비검속을 통해 서부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가?</li> <li>- '첫알오름'과 다른 폭력의 사례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통해 왜 평화가 중요한가?</li> </ul> <p>▷ 학생들은 관람전에 예비검속과 '첫알오름 학살터'와 관련된 내용을 읽는다.</p>	
전개	관람	<p>▶ 활동지를 읽은 후,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 관람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p> <p>▷ '첫알오름 학살터'를 통해 군·경의 잔혹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p>	* 필요할 경우, 교사 설명 보충
	모듬별 과제 학습	<p>▶ 관람 후,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가 모듬별로 과제를 해결해보는 시간을 부여한다.</p> <p>▷ 학생들은 교사가 부여한 시간 내에 모듬별로 과제를 해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군경은 예비검속을 통해 제주 서부 지역의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하였는가?</li> <li>2. 한국 현대사에서 정부가 민중에게 폭력을 가한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li> <li>3. 우리 이러한 폭력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li> </ol>	* 답사지 활용
정리		<p>▶ 교사는 학생들을 인원 점검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p> <p>▷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움직여 전세버스에 오른다.</p>	

**[제주 지역의 예비검속 현장, 첫알오름 학살터]**

- **예비검속과 '첫알오름 학살터'** : '첫알오름 학살터'는 원래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사용했던 탄약고 터였다. 6·25전쟁이 발발하여 경찰서가 주도하여 예비검속의 기준에 따라 C, D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금하여 학살하였다. 이곳과 관련하여 모슬포경찰서가 주도하여 한림면, 한경면, 대정면, 안덕면 등에서 374명을 검속하였고, 이들 중 8월 20일 새벽 2시에는 한림 어업 조합 창고에 수용된 63명이, 새벽 4~5시에는 상모리 절간고구마 창고에 수용된 132명이 각각 총살되었다.<sup>159)</sup> 이때 희생당한 이들은 당시 모슬포경찰서 관내(현재 한림읍, 대정읍, 한경면, 안덕면)에 거주하던 농민, 마을 유지, 교육자, 공무원, 우익단체장, 학생들이었다. 이후 유족들은 시신을 수습하고자 당국에 요청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으며 1956년에 와서야 유해를 수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유해 자체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어 있었다. 이곳은 2006년에 정비되어 2008년부터 대정읍 백조일손 유족회와 한림읍 만병디 유족들이 합동으로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다.<sup>160)</sup>

- **'첫알오름 학살터'의 모습** : 당시 새벽 트럭에 실려 가며 이곳을 향했을 때 제 죽음을 직감한 이들이 신은 고무신을 던져 가는 길을 가족들에게 알렸다고 한다. 그 길을 따라온 가족들이 왔을 때 희생자들의 소지품이 모두 불에 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현장 입구에 가면 '증거인멸의 장소'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또한 이곳에 있던 사건과 피해를 상세히 기록한 '불법주룩기'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주변에는 계단 길과 이곳에 대한 설명 안내판 등으로 둘러싸 있으며, 중앙에는 희생자 추모비와 집단학살 및 암매장 장소인 2개의 구덩이가 있다.



▲ '첫알오름 학살터' 내 학살 및 암매장 장소였던 2개 구덩이<sup>161)</sup>



▲ '첫알오름 학살터' 내 '증거인멸의 장소' 비석과 '불법주룩기' 비석<sup>162)</sup>

★ **평화의 개념과 중요성 :**

- **평화와 폭력 :** 평화란 ‘서로 아무런 일 없는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평화의 핵심은 바로 ‘관계와 폭력 제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란 단순히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폭력뿐만 아니라, 체제나 사상 등에 의해 가해지는 억압과 차별 등 간접적인 폭력을 포함합니다.<sup>163)</sup> 따라서 이러한 폭력들이 관계 안에서 모두 제거될 때, 비로소 평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관계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이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폭력의 형태로 해결하고자 할 때, 결국 국가 간에는 전쟁으로, 국가 내에서는 고문, 차별, 억압, 학살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전쟁, 고문, 차별, 억압, 학살 등으로 인해 우리의 인권은 침해당하거나 유린당할 수 있습니다.

★ **한국 현대사와 폭력, 비평화(非平和) :**

- **한국 현대사 속 폭력과 특징 :** 한반도는 1948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 각각 정부가 수립되었고, 각각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냉전이 시작됨에 따라 이념의 대립은 심화되었고, 결국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인명 및 물적 피해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반공(反共)을 국가의 목표로 삼고 이러한 명분으로 정권의 반대 세력에 대해 폭력과 억압, 차별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례들은 인권 침해를 동반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폭력과 비평화(非平和)의 사례, 제주4·3 :** 앞서 언급하듯이 ‘제주4·3’은 불안한 정치·사회·경제적 배경 속에서 1947년 ‘3·1절 발표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를 수습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물론 4·3이 발생하였을 때, 4·28 평화 협상을 통해 신속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익 청년들에 의해 ‘오라리 방화 사건’이 자행되면서 평화는 깨졌고, 1948년 8월 정부 수립된 이후에는 죄 없는 제주도민을 비평화(非平和)의 현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 ‘6·25전쟁’ (1950년~1953년)과 ‘5·18 민주화 운동’ (1980년)<sup>164)</sup>

159) 제주4·3평화재단, 앞의 보고서, 2019.

160) 4.3아카이브 - 4·3유적지 ‘첫알오름’ (<http://www.43archives.or.kr/viewHistoricSiteD.do?historicSiteSeq=9>).

161) 2021년 7월 25일의 현재 모습.

162) 위와 동일.

1. 군경은 예비검속을 통해 '씻알오름 학살터'에서 제주 서부 지역의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하였나요?

---

---

---

---

---

---

2. 한국 현대사에 있어 정부가 민중에게 폭력을 가한 사례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

---

---

---

---

3. 우리가 이러한 폭력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

---

---

---

---

---

163) 김한중, 앞의 논문, 2013.

164) 김형중 외 9인, 『중학교 역사 ②』, (주)금성출판사, 2020, 181쪽; 김태웅 외 9인, 『중학교 역사

<표 17> 현장 체험 학습 단계 3차시의 교수 학습 지도안 - [제주도 서부 지역]

대단원명	Ⅹ. 근·현대 사회의 전개	차시	3/3
학습제목	화해·상생의 상징, '영모원'	수업형태	자유 관람 및 모둠별 과제 학습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모원'에 안장된 사람들에 대한 출신과 비문 내용을 통해 '화해·상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li> <li>• '영모원'의 이야기와 비슷한 다른 사례를 통해서 '화해·상생'과 '평화·인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li> </ul>		
수업자료	답사 자료, 필기도구		

학습단계	주요학습내용	교수-학습	자료 및 유의
도입	동기 유발	<p>▶ 교사는 관람전에 '영모원', 화해·상생과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중점으로 지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귀리에는 어떠한 아픔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li> <li>- '영모원'과 다른 사례를 통해 화해·상생이 왜 중요하고, 평화·인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li> </ul> <p>▷ 학생들은 관람전에 예비검속과 '섯알오름 학살터'와 관련된 내용을 읽는다.</p>	
전개	관람	<p>▶ 활동지를 읽은 후,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 관람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p> <p>▷ '영모원'을 통해 마을의 아픔을 극복하고 진실 회복과 화합을 향해 나아갔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p>	* 필요할 경우, 교사 설명 보충
	모둠별 과제 학습	<p>▶ 관람 후,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가 모둠별로 과제를 해결해보는 시간을 부여한다.</p> <p>▷ 학생들은 교사가 부여한 시간 내에 모둠별로 과제를 해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귀리 마을의 명칭이 바뀐 원인은 무엇인가?</li> <li>2. 영모원에는 어떠한 출신의 사람들이 묻혀있는가?</li> <li>3. 위령비문 &lt;여기 와 고개 속이라&gt;에서 하귀리 사람들의 화해·상생을 보이는 구절은 무엇인가?</li> <li>4. 여전히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화해·상생에 이르기 위해서 가해자는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보여야 하는가?</li> </ol>	* 답사지 활용
정리		<p>▶ 교사는 학생들을 최종적으로 인원 점검을 하고 학교로 이동한다.</p> <p>▷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움직여 전세버스에 오른다.</p>	

②], 미래엔, 2020, 20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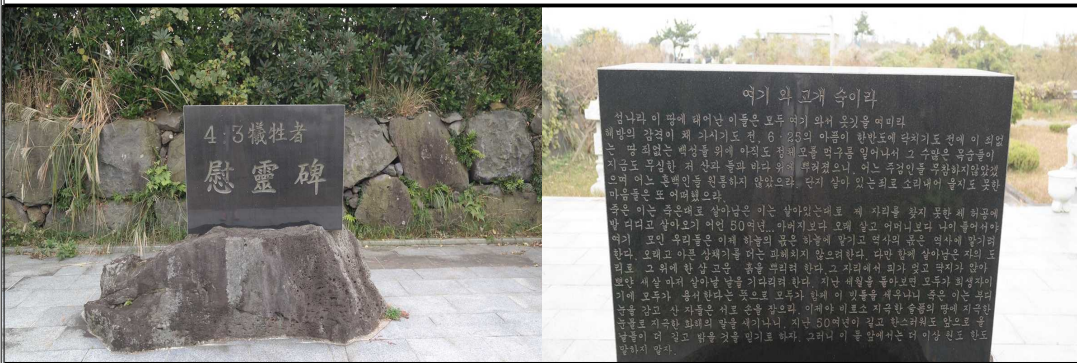
[화해·상생과 제주4·3, 영모원]

- **제주4·3 당시 하귀리** : 하귀리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항일 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이었다. 또한 이곳의 하귀 중학원 학생들이 1947년 3·1절 집회와 3·10 총파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 학원의 학생들은 물론 하귀리 청년들도 5·10 총선거를 거부하였다.<sup>165)</sup> 그러다 4·3이 일어난 이후, 초토화 작전의 내용에 따른 중산간 마을이 아니었음에도 여러 사건 등을 거쳐 총 320명이 희생되었다. 또한 토벌대가 이들 주민을 동원해 자기 주인들을 죽이게끔 강요하였다. 또한 이곳은 빨갱이 마을로 낙인찍히게 되면서 마을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져 갔다.<sup>166)</sup>

- **영모원의 의미** : 이러한 낙인으로 인해 오랜 고통을 겪었던 하귀리는 낙인에서 벗어나고자 1953년에 하귀1리와 하귀2리가 각각 동귀리와 귀일리로 개칭되었다. 하지만 정체성을 회복하고 갈등을 극복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1995년에 다시 마을 이름이 이전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더 나아가 마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죽어간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추모하는 뜻에서 2003년 5월 27일 제막식을 했다. 특히 그간 한자리에 모시기 어려웠던 4·3 시기 군경 희생자와 4·3 희생자를 한 곳에 모시어, 가운데 위령단 기준으로 우측 ‘충의비’와 좌측 ‘위령비’를 세웠다. 또한 우측에는 ‘영현비’라 하여 항일 운동가를 모시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sup>167)</sup> 이러한 모습은 이후 ‘애월읍 상가리 위령단’, ‘애월읍 장전리 추모원’ 등 설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제주4·3의 화해와 상생의 표본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담긴 위령비문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여기 와 고개 숙이라>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이제 하늘의 뭉은 하늘에 맡기고 역사의 뭉은 역사에 맡기려 한다. 오래고 아픈 상처를 더는 파헤치지 않으려 한다. …(중략)…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모두가 함께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 (후략)’



▲ ‘화해·상생’의 상징인 영모원의 모습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134-1 소재)<sup>168)</sup>

165) 제주4·3평화재단, 앞의 책, 2017, 1051쪽.

★ 화해·상생을 통한 평화 추구, 인권 회복 :

- 용서와 화해·상생 그리고 평화·인권 : 만약 우리가 과거에 누군가를 괴롭혔던 일이 있어 이를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피해자의 '용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sup>169)</sup> 즉, 가해자가 타인의 인권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고, 지난 일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지켜본 피해자가 지난 일에 대한 용서·화해가 이뤄질 때, 비로소 과거의 일에 대한 분열과 갈등이 해결되어 '화해·상생'의 평화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 과거사에 대한 화해·상생 사례 : 이처럼 가해자가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이를 피해자가 용서함으로써 화해·상생의 모습을 보이는 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 때 자행된 유대인 학살에 대해 끊임없이 사과하고 이를 기억하고자 역사교육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 성과 이후, 당시 공수 대원의 양심 고백과 이를 용서해 준 유족의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재수의 난('신축교안') 제주도민과 제주 천주교회가 화해·상생을 선언하는 일도 있었다.

- 제주4·3의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 '화해·상생'을 향하여 :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분위기 속에 진상 규명에 대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2000년 특별법 제정, 2003년 진상 보고서 출간 및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유족회와 경우회 간의 화해와 합동 참배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2019년에는 경찰과 국방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습니다. 시기가 지남에 따라 서서히 제주4·3에 대한 화해·상생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서독 총리의 이스라엘 방문 (1973년)<sup>170)</sup>

166) 하명실, 앞의 논문, 2017, 60~61쪽.

1. 하귀리 마을의 명칭이 바뀌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

---

---

---

2. 영모원에는 어떤 출신의 사람들이 묻혀 있나요 ?

---

---

---

---

3. 위령비문 <여기 와 고개 속이라>에서 하귀리 사람들의 화해·상생을 보여주는 구절은 무엇인가요?

---

---

---

---

---

4. 역사 속에서 과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많은 상처를 줬음에도 여전히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엇이 있으며, 이에 대해 가해자는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보여야 할까요?

---

---

---

---

---

---

---

---



### 3) 사후 학습 단계

사후 학습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현장 체험 학습 단계에서 진행하면서 답사지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하는 마무리의 단계이다. 이 단계 수업의 주제는 ‘제주4·3을 통해 평화·인권을 향해 나아가다.’로서, 이 수업의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다.

**<표 18> 사후 학습 단계의 교수 학습 목표 - [제주도 서부 지역]**

- 
- ① 폭력과 인권 유린의 관점에서 서부 지역의 제주4·3 유적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 ②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평화·인권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위의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현장 체험’ 단계에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적의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화·인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논의하여 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지금까지 모듈별에서 살펴본 서부 지역의 유적지와 관련하여 각자 어떠한 점을 느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제주4·3이란 어떠한 사건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자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 서로가 자신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 다음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평화와 인권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으로 실천해야 될지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마무리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듈별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제를 부여하여 추후에 이를 평가한다. 지금까지의 사후 학습 단계에서 진행할 활동지와 지도안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167) 제주4·3평화재단, 앞의 책, 2017, 1052~1053쪽.  
168) 2021년 11월 21일의 현재 모습.  
169) 현명호, 앞의 논문, 2011.  
170) 김태웅 외 9인, 앞의 교과서, 2020, 211쪽.

<표 19> 사후 학습 단계의 교수 학습 지도안 - [제주도 서부 지역]

대단원명	Ⅷ. 근·현대 사회의 전개	차시	1/1
학습제목	제주4·3을 통해 평화·인권을 향해	수업형태	발표 및 토론, 영상 제작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과 인권 유린의 관점에서 서부 지역의 제주4·3 유적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li> <li>•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문제에 대해 평화·인권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li> </ul>		
수업자료	PPT 및 사진·영상 자료, 활동지	소요시간	45분

학습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시간	자료 및 유의
도입	동기 유발	이전 차시 복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답사 단계에서 살펴 본 유적을 복기할 수 있도록 유도</li> <li>- 지금까지 살펴본 유적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나요?</li> <li>- 이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li> </ul> ▷ 교사의 질문에 반응.	3	
		학습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시 학습의 내용 목표를 제시.</li> <li>▷ 교사의 지시에 학습 목표를 읽는다.</li> </ul>	1	
전개	학습 내용	유적을 통해서 느낀 제주4·3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에게 유적의 의미를 설명하는 동시에 느낀 점에 대해 발표하도록 유도.</li> <li>▷ 체험한 유적에 대해 기억하여, 이를 설명하고 느낀 점에 대해 발표.</li> </ul>	15	* 답사지 활용
		평화·인권을 위한 실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4·3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평화·인권을 향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유도.</li> <li>▷ 교사의 지시대로 이를 논의.</li> </ul>	20	* 활동지 활용
정리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4·3의 소개 및 평화·인권 홍보 영상 제작을 과제로 제시.</li> </ul>	6	



[과제] 제주4·3과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영상을 모듬원끼리 만드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제목 :

모듬원 :

장면 구성	<Scene 1>	<Scene 2>	<Scene 3>
	<Scene 4>	<Scene 5>	<Scene 6>
	<Scene 7>	<Scene 8>	<Scene 9>
	<Scene 10>	<Scene 11>	<Scene 12>
	음악		

<예시> - 제주 고등학생이 들려주는 4.3사건 (<https://www.youtube.com/watch?v=hrSmYBI80VA&t=51s>)

제목 :

모듬원 : \*\*\*, ●●●, ■■■, ▲▲▲ (제주도 모 고등학교 ◆학년)

장면 구성	<Scene 1>	<Scene 2>	<Scene 3>
		기마경찰이 지나가던 아이를 치고	6명의 시민을 죽였어
	<Scene 4>	<Scene 5>	<Scene 6>
	민관 합동 총파업을 통해 경찰에 양의했고	이를 계기로 제주도를 좌익 본거지라고 단정되었지	무장대가 제주도 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Scene 7>	<Scene 8>	<Scene 9>
	투표 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처리 되었어		10분의 1인 3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해
	<Scene 10>	<Scene 11>	<Scene 12>
	아름다운 섬 제주가 핏빛으로 물들었던시절, <b>4.3</b>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 토인비
	음악	없음	

## V. 결론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기반으로 제주4·3 유적을 활용한 현장 체험 학습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하게 하는 것은 물론 평화·인권 의식 제고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평화·인권 교육에 있어 제주4·3은 교육적 소재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체험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현행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역사교육에서는 학생들의 평화·인권의식 함양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평화·인권의 개념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지 못하고 이를 축소하였다.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지역사나 상대적으로 소수인 사람들의 피해 등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주4·3이다.

제주4·3은 학생들에게 평화·인권의 감수성을 키우고 폭력과 인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인권 교육의 소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자료로서 현행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의 평화·인권의 감수성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최근의 설문에 따라 학생들과 교사들이 선호하는 유적지 현장 체험 학습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의 제주4·3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Ⅲ장에서는 제주4·3의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유적지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유적지 중 평화·인권 교육과 현장 체험 학습의 기준에 따라 총 6곳의 유적지를 선정하였다. 최근 제주4·3연구소에서는 주요 유적지 총 31개소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유적지는 주로 폭력과 학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대부분 현장 체험 학습에서 활용하는 데 현장의 흔적이 남아 있거나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단순히 폭력과 학살의 모습들만 보여준다고 해서 학생들의

평화인권 의식을 제고될 수 없다. 또한 현장의 흔적이 없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를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한 유적지로 선정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 주요 유적지 중 진아영 할머니 삶터, 첫알오름 학살터, 곤을동 등을 선정하였으며, 학생들의 평화·인권 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보완하고자 영모원, 제주 4·3평화공원, 너븐숭이 4·3기념관 등의 유적지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Ⅳ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체험 학습 방안을 각각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부 지역의 코스는 ‘제주4·3평화공원 및 기념관’ - ‘너븐숭이 4·3기념관 일대’ - ‘곤을동’의 순으로, 서부 지역의 코스는 ‘진아영 할머니 삶터’ - ‘첫알오름 학살터’ - ‘영모원’의 순으로 각각 현장 체험 학습의 계획, 5차시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과 활동지를 마련하였다.

사전 학습 단계의 수업에서는 제주4·3이 제주도민과 미군정, 인민위원회 간의 관계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로 인해 제주4·3이 어떠한 전개 과정 안에서 일어났으며 특히 3·1절 발포 사건과 관덕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4·3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다주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조별로 스스로 정하여 이를 조사하여 자신의 지역 역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수업의 참여를 유도하게끔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현장 학습 단계의 수업에서는 제주4·3의 전개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적들을 중심으로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 체험과 더불어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담은 답사지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평화·인권의 소중함과 감수성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후 학습 단계의 수업에서는 이전에 현장 체험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평화·인권적인 모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기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모듈별로 제주4·3을 소개하면서 평화·인권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영상 제작 과제를 부여하여 학생들의 정의감을 키우는 동시에 행동 및 실천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처럼 제주4·3과 같이 역사적 사례를 제공하고 기억의 역사적 장소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면, 중학생들이 사례 속에서의 폭력과 인권 유린에 대해 비판 의식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학생들의 삶 속에서도 평화·인권에 대한 실천 의지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 체험 학습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및 학습 참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각 학교마다 내부의 운영 체제가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현장 체험 학습 방안과 관련한 선행 연구와 중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 참여 정도 차이 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제주도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정한 시수나 실제 각 학교의 운영되는 수업 시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나머지 과연 본고를 참조하여 실제 각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학생들의 평화·인권 의식을 높이는 데에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실제 학교 현장의 재직 교사의 신분이 아니다보니 이를 직접 실행하거나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고 교수-학습 방안 및 자료를 마련한 정도로 마무리하였다. 그러다보니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평화·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각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한 수업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나 각 학교의 정한 시수 등을 고려하여 수업 방안이 마련되어야 각 학교에서 실제 현장 체험 학습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주4·3의 평화·인권교육과 유적지 현장 체험 학습을 연계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이러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제로 진행해야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으며, 그 효과가 검증되어야 실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한 현장 체험 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많은 참조가 될 것이다. 셋째, 학생들에게 제주4·3의 전개과정과 연계시켜 유적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는 학생들에게 제주4·3을 기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제주4·3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주4·3의 전개과정과 연계시켜 관



런 유적지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지에 대한 설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실제 주위의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유적지의 명칭은 물론 어떠한 전개과정과 관련된 유적지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제주4·3을 기억해야 될 역사적 사건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유적지도 같이 기억하여 좀 더 유적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주4·3 유적지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유적 관련 연구들은 특정 유적에 초점을 맞추어 보존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각 유적지가 사건 과정에서 각각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 과정 및 교과서>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해설』, 교육과학기술부, 2010.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014호 [별책 7] -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2.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 중학교』, 교육부, 2017.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 -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외 16개 시도교육청, 2018.
-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일부개정 포함)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2018.
-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15-074호 [별책 1] (교육부 고시 제2020-248호 일부개정 포함) -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2020.
- 김덕수 외 12인, 『중학교 역사 ②』, 천재교육, 2020.
- 김태웅 외 9인, 『중학교 역사 ②』, 미래엔, 2020.
- 김형종 외 9인, 『중학교 역사 ②』, 금성출판사, 2020.
- 노대한 외 10인, 『중학교 역사 ②』, 동아출판, 2020.
- 박근철 외 15인, 『중학교 역사 ②』, 지학사, 2020.
- 이병인 외 11인, 『중학교 역사 ②』, 비상교육, 2020.
- 이익주 외 8인, 『중학교 역사 ②』, 리베르스쿨, 2020.

### <저 서>

- 김한중, 『민주사회와 시민을 위한 역사교육』,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 ① 해방의 환희와 좌절, 3·1절 발포와 4·3의 길목』, 전예원, 1994.

- \_\_\_\_\_ , 『4:3은 말한다 - ④ 초토화 작전』, 전예원, 1997.
- \_\_\_\_\_ , 『4:3은 말한다 - ⑤ 초토화 작전의 실상』, 전예원, 1997.
- \_\_\_\_\_ , 『4:3은 말한다 - 6권 ① 한림면 청수리 ~ 애월면 장전리』, 2002,  
제주4:3평화재단.
-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 70년)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CNC출판, 201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5 개정 검인정 역사교과서 4:3 집필기준안 연구발표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7.
- \_\_\_\_\_ , 『청소년, 4:3평화의 길을 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7
- 최상훈 외 4인,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 함께, 2007.
-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4:3이 머우파?』, 도  
서출판 각, 2018.
- 전영준 편, 『역사교과교육론』,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2014.

#### <학 술 논 문>

- 권순정, 강순원, 「평화교육과 인권교육의 상보성에 관한 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10,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2015.
- 김남철, 「역사교육에서의 평화교육의 모색」, 『역사교육연구』 2, 한국역사교육학회, 2005.
- 김동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역사비평』 14, 역사문제  
연구소, 1991.
- 김무용, 「제주4:3 토벌작전의 민간인 희생화 전략과 대량학살」, 『4:3과 역사』 8, 제주4:3연  
구소, 2008.
- 김지수, 「4:3과 중산간 마을의 거주공간 변모 : 남제주군 안덕면 무등이왓을 사례로」,  
『제주도연구』 18, 제주학회, 2000.
- 김태일, 「1945년-1955년의 제주지역 4:3사건 관련 유적 분포 및 주거건축물의 특징 연구」,  
『제주도연구』 34, 제주학회, 2010.
- 김평선, 「제주4:3의 정치적 원인 - 과도입법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4:3과 역사』 14·15,  
제주4:3연구소, 2015.
- 김한중, 「평화교육과 전쟁사 -모순의 완화를 위한 전쟁사 교육의 방향-」, 『역사교육연구』

- 18, 한국역사교육학회, 2013.
- 나미란, 「인권 관점에 의한 3·1운동 수업 구성과 실천」, 『역사교육연구』 30, 한국역사교육학회, 2018.
- 박찬식, 「'4·3'의 公的 인식 및 서술의 변천」, 『한국근현대사연구』 41,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 \_\_\_\_\_, 「한국전쟁과 제주지역 사회의 변화 - 4·3사건과 전쟁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지역과 역사』 27, 부경역사연구소, 2010.
- 방지원, 「공감과 연대의 역사교육과 '과거사' 문제 - 성찰적 역사교육을 위한 시론 -」, 『역사교육연구』 28, 한국역사교육학회, 2017.
- 양유석, 「제주4·3 서술의 과거와 현재」, 『4·3과 역사』 18, 제주4·3연구소, 2018.
- 양정심, 「제주 4·3항쟁과 레드콤플렉스」, 『사충』 63, 고려대 역사연구소, 2006.
- 이동현, 「4·3유적 관리 실태와 보호방안 - 유적지 전수 조사를 중심으로 -」, 『4·3과 역사』 20, 제주4·3연구소, 2020.
- 전진성, 「인권은 역사학의 범주가 될 수 있는가? - '인권의 역사' 서술의 동향과 이론적 전망」, 『역사비평』 103, 역사비평사, 2013.
- 정현백, 「역사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 서독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80, 역사교육연구회, 2001.
- 조현서, 「교육 현장에서 바라보는 평화 감수성을 기르는 역사교육의 이상과 실제」, 『중원문화연구』 28,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20.
- 진관훈, 「해방 전후의 제주도 경제와 '4·3」, 『탐라문화』 2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00.
- 한상희,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중학교 사회과 수업모듈 개발 : 제주 지역을 사례로」, 『국제이해교육연구』 14(2),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2019.
- \_\_\_\_\_, 「4·3과 평화교육 - 후세대에게 첫 배움인 제주4·3」, 『역사와 교육』 19, 역사교육연구소, 2020.
- 한철호, 「고교 역사교과서의 제주 4·3 사건 서술 경향과 과제」, 『사학연구』 103, 한국사학회, 2011.
- \_\_\_\_\_,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제주 4·3사건 서술 내용과 향후 집필 방향」, 『탐라문화』 59, 탐라문화연구원, 2018.
- 허호준, 「제주 4·3무장봉기 결정과정 고찰」, 『4·3과 역사』 7, 제주4·3연구소, 2007.
- \_\_\_\_\_, 「제주4·3에 있어서의 민간인 학살 논리 - 대계릴라전을 중심으로」, 『4·3과 역사』 8,

- 제주43연구소, 2008.
- \_\_\_\_\_, 「1947년 냉전체제의 형성과 제주도」, 『43과 역사』 17, 2017.
- \_\_\_\_\_, 「제주 43 연구 30년 - 진실과정의 추구를 위한 과정 -」,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1), 제주학회, 2018.
- 현명호, 「분노와 한, 그리고 용서의 모색」, 『43과 역사』 11, 제주43연구소, 2011.
- 현진호, 「제주 43공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접근 방향」, 『43과 역사』 7, 제주43연구소, 2007.
- 황현정, 「가치를 다루는 역사 수업의 실제와 가능성 -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가치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24, 한국역사교육학회, 2016.

### <학 위 논 문>

- 강민정, 「지역 역사자료 활용을 통한 인권교육의 방법과 적용 - 서울시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 교과서 내용중심으로 -」, 서울교대 초등사회과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 강순문, 「초등학교 역사교육에서 43 학습 방안」, 제주대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2.
- 고경아, 「제주지역 고등학생의 제주43 인식과 평화인권 교육 방안」, 부산대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 2020.
- 김은희, 「제주 43전략촌의 형성과 성격」, 제주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박연화, 「초등학생 평화교육을 위한 박물관 활용 방안 - 전쟁기념관과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을 중심으로 -」, 경인교대 박물관 및 미술관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8.
- 박영기,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방안 - 제주 43 사건을 중심으로」, 경희대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 서경선, 「기억을 통한 역사수업과 기념물의 활용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기억과 기념물을 중심으로 -」, 중앙대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9.
- 선혜란, 「평화감수성을 기르는 전쟁사 수업 : 한국전쟁을 사례로」, 한국교원대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9.
- 양금영, 「2015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 자료의 제주 43사건 서술 분석과 수업 방안 모색」, 동아대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20
- 윤영섭, 「초등학생의 전쟁 인식과 평화교육 : 한국전쟁 수업방안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사회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이그나즈 아니타, 「제주4·3사건과 주민의 동굴 피신생활」, 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16.

전보람,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초등 역사학습 내용 구성과 수업 실천」, 한국교원대 초등 사회과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8.

정광운, 「전쟁사와 평화교육 :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사 교육을 통한 한국전쟁사 교육방법 연구」, 원광대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6.

조정희,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주지역 예비검속과 집단학살의 성격」, 제주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하명실, 「제주도 하귀마을의 4·3 경험과 치유과정 연구」, 제주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 <보 고 서>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 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평화재단, 2015 (초판, 2003).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 제주4·3평화재단, 2019.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구위탁사업) 4·3평화인권 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20.

제주도, 제주4·3연구소, 『제주4·3 유적 I - 제주시·북제주군 편』, 도서출판 각, 2003.

\_\_\_\_\_, 『제주4·3 유적 II - 서귀포시·남제주군 편』, 도서출판 각, 2004.

\_\_\_\_\_, 『제주4·3 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 계획』, 도서출판 각, 200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 삼영문화인쇄사, 2010.

### <사진, 영상 및 기타자료, 참고사이트>

4.3아카이브 (<http://www.43archives.or.kr/>).

Jtbc Insight, '차이나는 클래스' 57회 - '이틀 동안 400여 명의 주민을 학살한 북촌 사건', 2019.12.09. (<https://www.youtube.com/watch?v=VRYjUINJzjg>).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48.

VISIT JEJU (<https://www.visitjeju.net/>).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용어사전’ - ‘인권(Human Rights)’, 2021.04.10. 검색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dictionary/listDictionary>).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조 제1호.

김정색, [제주4.3]중학생이 바라본 4.3사건, 2021.11.05. (<https://www.youtube.com/watch?v=fAlfLyvoEck>).

김병택, ‘아! 5.18 광주민주화운동’, 영남신문, 2018.12.01. (<https://www.yn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3>).

김병택, “‘제주 4.3 양민 학살 사건’”, 영남신문, 2021.01.25. (<https://www.yn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38>).

무명천 진아영 삶터 보존회 (<https://43moomyungchun.kr>).

양창희, ‘41년 만의 사죄...5.18 유족에게 사과한 공수부대원’, KBS, 2021.03.1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41129>).

위즈덤하우스, 故 무명천 할머니 제주43 70주년 평화와 인권 그림책 ‘무명천 할머니’, 2018.03.29. (<https://www.youtube.com/watch?v=IvdhF2iDQw>).

이가영, "남자들에 끌려간 언니 미안해요" 울음바다 된 형제복지원 재판, 중앙일보, 2020.10.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95331#home>).

이병기, '4월 혁명, 인천의 주체는?', 인천in, 2010.04.19.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8>).

제주4.3평화재단, ‘제주 고등학생이 들려주는 4.3사건’, 2020.07.29. (<https://www.youtube.com/watch?v=hrSmYBl8OVA&t=51s>).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 ‘인권의 3세대 개념’, 2021.04.10. 검색 ([https://humanrights.cau.ac.kr/human.php?mid=m03\\_02](https://humanrights.cau.ac.kr/human.php?mid=m03_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삼청교육대(三清教育隊)’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6508#>).

허호준, “[제주 4·3] 핏빛 바다, ‘곤을동’에 가신 적이 있나요”, 한겨레, 2021.04.03. (<https://www.hani.co.kr/arti/area/jeju/989455.html>).

홍의석, “충에 턱을 맞은 무명천 할머니...악몽이 그녀를 지배했다.”, 제주일보, 2018.08.12.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9403>).

<Abstract>

## A Study on the Experience Learning Method of Peace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 Jeju 4·3 Relics in Middle School

Jwa, Seung-Ha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eong-pil

Peace and human rights were emphasized as universal rights internationally in 1948 by the United Nations, the UN expected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to feel the importance of peace and human rights and never again never break out war in the world. However, the problem of threatening peace and human rights has been constantly occurring, it has also emerged as a phenomenon of committing violenc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or interfering with groups that the state opposes in Korea. If state violence is taken for granted like this, it leaves irreparable wounds between individuals, individuals, and countries, it can lead to the repetition of contradictions accumulated through the mistakes of history. Therefore, the reinforcement of peace an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gin in adolescence, when values begin to be formed in earnest, values that can respect life should be realized through this.

This case also occurred in the Jeju area in 1948, which is Jeju 4·3. Jeju 4·3 is an incident that occurred by Jeju South Korea Labor Party on the pretext of opposing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government. however, this incident was the main cause of the continued suppression of the Jeju residents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since the shooting incidents on March 1, 1947, it sacrificed innocent them to deal with this quickly. In recent history education, students are required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peace and human rights and to develop sensitivity based on such historical facts, and to provide learning guidance that can lead to the practice of preventing or eliminating problems such as violence,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lso,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ffice of Education recommends that students understand the correct historical facts of Jeju 4·3 and use it to cultivate students' right peace and human rights consciousness. As such, Jeju 4·3 needs not only to be remembered by students as a special regional history unique to the Jeju region, but also needs to be actively utilized to cultivate students' correct awareness of peace and human rights.

Textbooks are the most basic material for using Jeju 4·3 as peace and human rights education. However, in the current history textbooks, the background and causes of Jeju 4·3 are not clear and only fragmentary results are presented. It is problematic in instilling a sense of peace and human rights and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Jeju 4·3. Also,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in a recent survey, field experience learning was the most helpful, and there were many responses that it was necessary to increase it. In addition, in the case studies or research results conducted on Jeju 4·3 so far, there has been no case of finding a way to learn about historical sites in the field for middle school students. In this regard, this paper tried to develop a field experience learning plan for middle school students at the Jeju 4·3 historic site in connection with peace and human rights education.

Therefore, the local scope of this field experience learning is divided into East and West to select and utilize the area related to Jeju Island. The activity paper and teaching-learning plan of total 5 classes were composed according to 3 stages of 'pre-learning', 'field experience learning' and 'post-learning'. In this process, students will understand peace and human rights properly and experience the site of historical sites in person to help them develop peace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while cultivating their will to practice. It is thought that it will play a role in increasing interest in their own local history as well as related historical sites by deepening the historical justification for why students should remember Jeju 4·3 and the correct perception of Jeju

4:3.

The following limitations can be pointed out in this study. First, it overlooked the fact that each school has a different internal operating system. Second, there is no verification of the effect as well as the actual practice of the class, so it may be doubtful whether it will have a great effect on raising students' awareness of peace and human rights.

However, in order to supplement this, the following follow-up studies should be carried out.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method that considers the direction in which each school can operate efficiently. Second,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that can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Jeju 4:3 peace and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field experience learning. Third, it is necessary for school teachers to make efforts to remember the relics by link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Jeju 4:3 to students.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on various and in-depth analyzes of the Jeju 4:3 historic site.